대전투데이

의료광고심의 190802-중-97491
보문산 생태요양병원 042) 222-5567
암 재활 암 면역 영양식단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552호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오늘부터 30세 이상 예비군 · 민방위 · 군종사자 얀센백신 예약

총 101만 3000명분… 예방접종사전예약사이트서 선착순 접수

6월 1일부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로부터 공여받은 얀센 백신 101만 3000회분의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이번 백신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국 정부가 얀센 백신을 우리 군과 유관 종사자들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했는데, 30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접종 대상 연령 등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 방사청 · 병무청 공무원 및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 현역 군 간부 가족(배우자 및 자녀, 동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포함), 군 부대 고정 출입 민간인력 등 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은 6월 중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예약을 거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이에 국방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접종대상자로 사전안내 받은 사람과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접종대상자는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을 받는데, 접종은 오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다.

다만 60세 이상 사전예약 때와는 달리 접종 물량만큼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데, 예약을 못 한 대상자들은 7~9월 일반 국민 대상 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을 받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31일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105%인 총 540만 4000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80대 이상 60%와 70대 39.7%가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2차 접종완료자는 총 214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7일부터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에 대한 60세 이상 어르신 등의 사전예약은 30일까지 650만 9000명이 완료해 예약률은 68.7%를 보였고, 70대 초반에 이어 65세 이상 예약률도 70%를 넘었다.

추진단은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가족들은 어르신의 예방접종에 관심을 갖고 살펴줄 것을당부했다.

또한 6월 1일에는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만 9000회분과 모더나 백신의 초도 물량 5만 5000회분도 국내 도착하는데, 특히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의 수송과 안전한 보관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9.2%로, 지난 4월 조사 61.4%와 비교해 7.8%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지난 25일부터 3일동안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과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다.

특히 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5.7%에서 8.8%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 95.5%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는 답변은 85.2%였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1%, +1.0%p)'가 여전히 많았고, '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60.1%로 나타났다.

한편 71.9%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24.3% 중 64.6%는 11월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방역정책에 관한 평가는 58.8%~51.1%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방지는 58.8%였고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는 55.9%였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책이 48.2%,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조기에 들여오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은 42.0%, 현재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등 현실적인 방역수칙 정비는 29.5% 순이었다.

방역 관련 정보와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 등 현재의 방역대책(57.9%, +2.7%p)과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수칙(56.9%, +2.5%p)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43.0% +7.6%p), 예방접종 현황 정보(39.3%, +5.2%p)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확인됐다.

이정복 기자

양승조 지사,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회' 참석… 동반자 역할 강조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 · 강원 · 충청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회'에 참석, 힘찬 활동을 응원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정책대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이 직접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지만, 공공자원과 서비스는 여전히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청년실업과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법이 자치분권에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국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즉 자치분권 만이 국민의 다양하고 차별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자치분권이야말로 지역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끝으로 "충남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구심점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힘찬 활동을 응원할 것"이라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힘차게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이날 우수정책으로 △학대신고대응센터 설치(논산시장 황명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백신접종 무료택시'(금산군수 문정우)을 우수정책으로 소개했다.

김정환 기자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10%p→20%p

7월 1일부터 서민 ·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로 상향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와 같은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확대한다.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10%p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에는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 ·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청년 · 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이에따라 1인당 한도는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현재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한다.

또한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도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모델로 선보여

황명선 논산시장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31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추진한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선보였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주최하고 대전MBC가 후원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더욱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백신접종 무료택시(충남 금산군) ▲학대신고 대응센터(충남 논산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대전 대덕구) ▲이야기를 담은 공중화장실 담소(대전 동구) ▲빅데이터 기반 3공 주차지도(대전 서구) ▲디지털 행정 혁신(대전 유성구) ▲버스공영제 추진(강원 정선군) ▲구석구석 파수꾼 택시 경찰대(충북 증평군) 등 15개 사례가 소개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에 대해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문제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지역이 함께 나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선도적이고 참신한 정책들이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늘 소개한 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각 지방정부와 함께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시민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날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5월에 접수한 91개 우수 지방정부 정책들 중 IoT기반 위험시설물 예 · 경보(서울 구로구), 과학브랜드 '유성다과상'(대전 유성구), 주거안전망 MH마포하우징(서울 마포구), 마을사랑채 조성(광주 동구) 등을 포함한 총 12개를 선정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훈격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은 시민과 공동체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며 "이번 대회가 자치분권의 과제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환경에 대응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자치분권만이 지방정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위원회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이 앞당겨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성구기자

대전 중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연수)는 5월 31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김연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선 공인회계사를 초청해 6월 1일 개회하는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비한 정확하고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마련됐다. 결산심사 기법 등을 주제로 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결산심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는 대전 자치구 최초로 본회의 회의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지자체도 남북관계 발전 위한 책무의 주체로 명기

박영순 의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 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1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및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등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과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추가 되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경우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남북합동조사가 시급한 경우에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복기자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제1회 추경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현옥, 이하 예결특위)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해 각각 2,455억원(13.5%) 증가한 총 2조 628억원과 1,352억원(16.5%) 증가한 9,560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14개 사업에서 17억 2,544만원을 감액하고,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도시공원 시설개선 등 28개 사업에서 총 17억 2,54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7억 1,200만원(0.2%) 증가한 3,003억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세종=김태선기자

대덕구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김태성)는 6월 1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원이 발의한 조례 및 일반안 6건과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9~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0회계연도 세입 · 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 답변 후 폐회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daejeontoday.com

한상기 전 태안군수, 내년 지방선거 군수 출마 공식 선언

민선6기 계획했던 대형 미래전략 사업들 재추진 강한 의지를 피력

한상기 전 태안군수는 31일 보도자를 통해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태안군수 후보로 출마를 했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강력한 출마 권유가 있어 나름대로 지지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역인사와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당의 주요 인사들과 상의하는 등 심사숙고(深思熟考)한 끝에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상기 전 군수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한 결과 그분들의 뜻이 단순히 지지자로서의 바람을 넘어서 태안의 미래를 생각하는 깊은 뜻에서의 절실함과 간절함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분들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고심도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확실히 결심한 이상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는 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민선6기에 계획하고 이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형 미래전략 사업들도 차질 없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披瀝)하기도 했다.

한상기 전 군수는 경기 활성화와 군민화합이라며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에서 폭넓게 쌓아온 43년의 행정경험과 민선6기 4년간의 군정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태안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켜 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태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정을 다해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피력 했다.

민선6기 4년동안 주민생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래발전을 이루어 가야하는 지방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행정경험과 전문성 없이 책임자가 될 경우 많은 착오는 물론 오히려 퇴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자는 군민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태안군을 대한민국 서해안의 신 관문도시로 반드시 발전시켜 새로운 태안의 행복시대를 열어 나아갈 것이라며 군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대전시, 국토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

어린이집 5개소 · 보건소 2개소 선정, 국비 977백만원 확보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7개소(총사업비 14억원) 선정되어 금년 7월부터 본격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의료시설, 어린이집,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외벽단열, 단열창 설치,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신재생(태양광) 설치 등 탄소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그린뉴딜 사업은 대전시의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탄소발생 저감 효과가 매우커 대전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70%로 지방 재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대전시는 2022년 이후에도 본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공모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2020년에는 11개 사업(사업비 112억원)이 선정되어 국비 79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3개 사업은 완료하고, 8개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지원사업에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50호가 선정되어 국비 24억원을 확보 ▲매입임대 그린리모델링 64호 선정되어 국비 2억3천만원 확보했고, 금년 추경예산에 시비(40%)를 확보하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글로벌 아젠다인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계획을 분야별로 적극 추진하고,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시설개선에도 더욱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오세현 아산시장 '백신 접종률 향상 노력' 강조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31일,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및 6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코로나19 비상경제 및 생활방역 대책 ▲6월 월간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오세현 아산시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상황에도 ▲크라운 · 해태제과 1000억 원대 신규투자 MOU 체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1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 선정 ▲충청남도 제29회 지적세미나 우수상 수상 ▲충청남도 공무원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등 매월 시정 성과를 이룬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최근 목욕장,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적극 대응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 추가 확산을 차단했다"며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안업무 관련해서도 "기후 변화로 인해 단시간 내 국지적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으로 국 · 소장이 직접 챙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천 정비, 산사태 위험지구 등 재해복구사업의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이통장 및 지역주민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 2294억원 증액 편성

교육격차 해소, 코로나19 방역 사업, 교육환경개선에 중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 3조 5,548억 원 대비 2,294억 원(6.5%)이 증액된 3조 7,842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와 전년도 정부 결산 순세계 잉여금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1,80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3억 원,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128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유아학비 지원, 돌봄사업 등 교육복지 사업 ▲코로나 19 관련 방역 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중점 편성하였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방역인력 지원을 위해 81억 원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기구 구입을 위해 70억 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수업용 기자재 61억 원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지원을 위해 62억 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107억 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사 매입 66억 원 ▲교육환경개선 개선 668억 원 ▲향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액으로 786억 원 등이 편성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든 사업의 집행 여건을 분석하여,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고 학교 방역예산은 증액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내진보강사업, 화장실 개선 등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남선관위,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모집기간 6월 7일부터 18일까지, 32명 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안내, 위법행위 예방 · 단속활동 지원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32명(도선관위 2명, 구 · 시 · 군선관위별 1~2명)으로, 지원자는 6월 7일부터 18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도선관위 또는 구 · 시 · 군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2021년 7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각 위원회 모집인원은 충남도 · 천안시서북구 · 천안시동남구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태안군 · 금산군 · 논산시 · 당진시 · 부여군 · 서천군 · 홍성군 · 예산군 각각 2명이며, 계룡시 · 청양군 각각 1명 이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방법 · 근무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 모집 ·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한국 원전기술의 우수성 적극 홍보"

박병석 국회의장, 러시아 · 체코 공식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의 러시아 ·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는 외국 국회의장이다. 또 체코 방문은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이며,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6년 만의 공식 방문이었다. 이번 순방은 러시아 바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편집자 주>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22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모스크바 구세주성당 레드홀에서 러시아 정교회 키릴(Kirill) 총대주교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박 의장은 키릴 총대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총대주교님께 경의를 표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남북한을 동시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방문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키릴 총대주교는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두 나라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제가 꼭 남한과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키릴 총대주교는 이어 러시아 정교회의 한국 내 종교단체 등록과 성당 건립 지원을 요청했고, 박 의장은 관계 부처에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6시 30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구한말 러시아에서 활동한 이위종 열사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자손 및 고려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 러시아에 당당히 뿌리를 내린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고려인 동포와 대한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포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 또한 원로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실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모스크바에서, 또 워싱턴에서도 아마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24일 오전 모스크바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11시부터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단독회담, 두 의장과 양국 의원들이 함께 하는 확대회담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구축 협력 △수소와 북극개발, 교역 확대 등 한러 양국 경협증진 △코로나극복 연대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등을 존중하고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로 합의했다"며 "남북국회회담,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동북아 방역 공동체 등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한미간의 완전한 조율이 끝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알려줬으면 한다"며 "남북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국회회담이 긴요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비롯한 외교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백신을 개발해 각국에 보급하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세계적인 백신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기술의 공동개발과 배급 같은 문제에 러시아와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확대회담에서 박 의장과 볼로딘 하원의장은 한-러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서비스 투자분야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가 조속히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연해주의 한국 전용 산업단지가 연내에 기공되길 바란다. 한국 기업의 연해주 진출은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2035 에너지 계획'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수소 생산 저장 기술과 한국의 수소차, 수소 전기 응용기술이 합해진다면 양국이 윈윈(win-win)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간담회 직후 삼카예프 주우랄연방관구 명예영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교류와 소통 및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삼카예프 명예영사는 뜻도 밝혔다. 박 의장은 "북극협력을 본격화 했으면 좋겠다. 러시아가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축하하며, 한국 역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만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볼로딘 의장은 "의장님이 제기한 협력 방안이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위 협력 위원회 의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의제 초안을 바탕으로 의제를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당초 15분 예상되었던 단독회담이 30분 가까이 길어지면서 단독 및 확대회담이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박 의장은 확대회담을 마치고, 볼로딘 의장과 함께 양국의 기자단에게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고 두 나라 국회 간 긴밀한 협력방안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박 의장은 기자단 브리핑을 마친 직후 볼로딘 의장이 주최하는 환영오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24일 오후 모스크바 소재 롯데 호텔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글렙 이바센초프 국제관계위원회 부총재, 러시아 외교부 북핵담당 특임대사로 활동했던 올렉 다비도프 세계경제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빙해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지난 5월 22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정책의 기조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서 완전히 조율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4년 동안 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 점진적 발전이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내비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5 · 22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새 국면을 열었다고 입을 모으면서 남북대화 재개와 과거 6자회담과 유사한 다자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바센초프 국제관계위원회 부총재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두 개의 바퀴다.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합의는 남북이 더 이상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노바텍 고문은 "주한러시아대사로 일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정책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었다"고 회고하며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하며 역시 정상 간의 대화가 가장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교부 북핵담당 특임대사로 활동했던 다비도프 세계경제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도 입장이 같다.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 참사관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알렉산더 제빈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장은 "4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단기간 안에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전에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경제난,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내부 종합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직후 삼카예프 주우랄연방관구 명예영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교류와 소통 및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삼카예프 명예영사는 우리 정부가 임명한 유일한 러시아 명예영사다.

삼카예프 명예영사 접견을 마친 박 의장은 러시아 상원 러 · 한 의원협력그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25일 오후 모스크바의 상원 의사당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3년 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의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원의장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양국 의회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장님 평가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열차 시범 운행과 관련해서도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마트비엔코 의장의 한반도 평화 가교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코로나 백신 협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한국에서도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승인 작업을 시작했고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스푸트니크V 백신이 한국에서 조속히 승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백신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러시아와 방역에 앞서가는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코로나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특히 "투자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 분야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비스투자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한국과 러시아의 수소기술이 뛰어나다며 수소기술협력이 이뤄지면 양국의 협력단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마트비엔코 상원의장도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 후 러시아 상원 방송과 별도 인터뷰에 나서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양국 의회의 역할, 스푸트니크V 백신 한국 생산 등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양국의 협력 등 이날 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마치고 모스크바 소재 롯데호텔에서 현지 교민과 기업인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이 개척자고 또 민간외교관이며, 한국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든든한 가교"라고 격려했다.

참석한 교민들과 기업인 대표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출입국 문제 △교민들의 연금수령 △기업 활동 애로사항 등 교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교민들의 국내 출입국 문제와 관련해 박형택 모스크바 한인회 회장은 "교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을 자발적으로 접종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 출입국 시 자가 격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면서 "백신을 접종한 교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자가 격리 축소나 면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절실한 문제이기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체코로 향한 박 의장은 27일 오전 프라하에 있는 상원의사당인 볼로브라타 궁전에서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으로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순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이후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가운데 첫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의 국회의장 방문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비(非)EU국가 가운데 외국 의장급의 첫 번째 체코 방문이다.

박 의장은 "체코는 문화와 예술 수준이 높고, 한국에 우호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 무역량이 줄었지만 한 · 체코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36억 불을 기록했다"며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양국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전건설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기술능력, 시공,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한국이 원전 건설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기업과 협력해 현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이전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의장은 "체코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현지화와 기술이전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에 함께 참석한 피셰르 상원외교국방안보위원장도 "원전은 우리에게 가장 큰 프로젝트"라면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 의장은 사이버보안과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긴밀한 양국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기도 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는 지금 사이버보안 문제가 크다. 한국과 협력이 긴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타국으로부터 투자관련 R&D에 주력하고있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신다면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체코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문제도 협력하겠다. 한국은 IT가 발전한 나라이고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체코 정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이후 프라하 직항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국 국민 125명 가운데 1명이 체코를 방문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00명당 1명은 될 것"이라며 양국 직항 재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27일 오후 프라하 인근 대통령 관저인 라니성에서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제만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 · 체코 공동 협력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참여 등 경제협력 강화 △서울 · 프라하 직항노선 재개 방안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박 의장은 "저는 작년에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 대표단을 만날 자세가 돼 있다"면서 "제만 대통령도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제만 대통령은 "북한에는 저희 체코 대사관이 있다. 한국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지원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며 "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북한과 함께 '하나의 나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신규 건설 예정인 두코바니) 원전은 우리나라가 가장 최적의 파트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원전 완공 후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이버보안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만 대통령이 강조했던 현지 업계의 참여, 기술이전도 우리는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리튬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필수 소재다. 제만 대통령의 (리튬 개발에 대한) 관심을 정부와 관련 회사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체코의 리튬 보유량은전 세계 리튬 보유량의 약 3%이며, 2017년에는 체코에서 대규모 리튬 광산이 발견된 바 있다.

이어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것을 기억한다. 한국에서 다시 뵙기를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제만 대통령은 "이전에 총리로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저의 다리 상태만 허락해 준다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은 당초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간 예정됐지만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박 의장은 28일 오전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만나 경제협력 및 관광활성화,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특히 원전협력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원전은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다. UAE 바라카 원전은 국제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업운전을 이미 개시했다"며 UAE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장은 또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을 세계적인 백신생산 허브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직접 개발한 백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혈장치료제도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백신 · 치료제 개발계획을 자세히 소개했다.

바비시 총리는 "UAE 원전 사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면담에 동석한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교통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 파트너다. 한국이 원전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 이루기 바란다. 수일 안에 사전 안전성 평가 결과를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며, 14개월 안에 입찰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바비시 총리는 "비(非)EU 6개국에 관광 활성화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방한을 추진했으나 안타깝게 이루지 못했다. 한국은 전략적 · 경제적 파트너이므로 꼭 방문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방한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총리 면담을 마친 박 의장은 밀로시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 함께 현지 및 한국 언론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체코 방문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 상 · 하원의장과 총리를 모두 만나 양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원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체코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더 많은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비스트르칠 의장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사이버 공격, 허위사실 유포 분야 등에서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국회의장 대표단이 기업가들을 동반해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특히 두코바니 원전 입찰과 관련해 한국 한수원이 유망한 입찰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동기자회견이 마무리된 후 박 의장은 영빈관인 리히텐슈타인 궁에서 라덱 본드라첵 체코 하원의장과 업무오찬을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회의를 가짐으로써 양국의 우정을 확인했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박 의장은 또한 원전 수주에 대한 체코 측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본드라첵 하원의장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 수주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원전에 대한 박 의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한국이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라고 보며, 상호 윈윈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날 오후 박 의장은 체코 순방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프라하 포시즌스 호텔에서 현지 동포 대표와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원자력의 우수성을 강조했는데 체코 측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고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체코에 계신 2500명의 교민과 90여개 한국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회=김성구 기자

●동 정●●●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대전신세계 채용박람회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1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전신세계 채용박람회'에 참석하며 오후 4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6월 민주항쟁 사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

사회적경제기업 장보기 행사

황인호 동구청장= 1일 오후 5시 30분 가오동 홈플러스 지하 1층에서 열리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 사회적경제기업 장보기 행사에 참석.

제1차 본회의

박용갑 중구청장= 1일 오전 11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참석.

청년희망 멘토단 위촉식

장종태 서구청장= 1일 오후 5시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리는 서구 청년희망 멘토단 위촉식에 참석.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막식

정용래 유성구청장= 1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신세계 엑스포점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

에너지 전환 국제컨퍼런스

박정현 대덕구청장= 1일 오후 4시 한남대에서 열리는 한-EU 지역에너지 전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광고문의
(042)538-3030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연말까지 연장

대전시, 인구대비 가입자 광역시 1위… 지원대상 늘고 혜택도 확대

대전시는 시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교통비 30%을 절감해주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2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요금의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1년 4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에서 알뜰교통카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마일리지 지원 대상 및 혜택이 확대되었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까지 대중교통을 승차할 경우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기본 마일리지의 50%)를 지급하며,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 19세~34세)들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대상 연령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였다.

이른 시간대에 통근·통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된 보행 및 자전거 이동거리를 대중교통 1회 이용 시 최대 800m당 500원(국정과제 250원 + 자체사업 250원)을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http://www.alcard.kr)에서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전용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출발지에서 전용앱 실행 후 '출발'을 클릭하고 알뜰교통카드로 승하차를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앱에서 '도착'을 클릭하면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대전시는 작년 8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지원 사업을 8개월간 시행한 결과 알뜰카드 대전 가입자는 2020년 6월 3,424명에서 2021년 3월 12,125명으로 늘어났다.

마일리지 추가 지원 사업의 재원은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중 휴면선수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이용자가 6,083명으로 약 178,488,000원이 지급되었다.

이로써, 5년 이상 묵혀있던 휴면선수금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됐다.

※ 휴면선수금 :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중 교통카드 분실, 훼손 등에 의해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약 16억 원)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더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시내버스는 기점지에 도착할 때마다 전문 업체를 통해 방역을 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직업상담사 2급 과정' 입교식 개최

대전지방보훈청(청장 황원채)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31일 오전 10시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직업상담사 2급'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교육기간은 5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다.

중앙보훈병원,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보장구센터 휠체어 수리 봉사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센터장 채수정)는 입소어르신들의 휠체어 점검 및 수리를 위해 대전보훈요양원(원장 박영욱)을 방문,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휠체어 약 40대에 대해 부품 교환, 발판 조정, 브레이크 수리, 튜브 교체 등을 수리 봉사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장구센터의 이번 방문은 그간 고장난 휠체어로 불편을 겪었을 어르신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됐다.

대덕구-한솔제지(주) 대전공장, 119탄소다이어터 실천 협약

1회용품 1도 없는! 평균기온 1도 하락! 지구를 9하라 !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달 31일 한솔제지(주) 대전공장에서 한솔제지(주) 대전공장(공장장 오준균)과 '119 탄소다이어터 실천' 업무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에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119 탄소다이어터'란 '1회용품 1도 없는! 평균기온 1도 하락! 지구를 9하라'는 의미로 생활 속 탄소 발생량 저감을 위한 행동 실천 및 탄소저감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채식운동 장려를 위해 ▲채식하는 날 운영 ▲지역 먹거리 우선 사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반입 제한 ▲에너지 절약 및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한 시책 시행 ▲취약계층 지원 및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재활용품 기부 활동 동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채식 장려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한솔제지 구내식당에서 직접 채식 식단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정현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 중 119 탄소다이어터 양성 캠페인은 지구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준균 공장장도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탄소저감 실천 운동인 119 탄소다이어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내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습관화된 실천에 구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덕e시작하는 그린뉴딜'의 5대 분야 40개 사업을 발표하고 그 중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119 탄소다이어터 양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대덕형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탄소인지예산제' 추진 등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접수방법이 확 달라집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공공체육시설 이용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현장및인터넷 접수를 통한 추첨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선착순 모집 시 현장대기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문제점과 과도한 경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원등록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 추첨제를 도입한다.

추첨제는 오는 7월 1일 GX프로그램(요가, 매트필라테스) 접수부터 적용하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추첨제 도입을 통해 종목별 접수(현장, 인터넷)는 매월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한 현장접수와 직장인 등을 위한 인터넷 접수가 함께 진행된다.

또한, 사물함 이용도 회전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연 4회 접수와 추첨으로 변경되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계자는 "추첨제 접수방식 도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서구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추진

11일까지 접수, 미래 세대 공동체 다양한 활동 적극 지원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역 청년들의 협업·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팀을 다음 달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청년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사업 신청은 서구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 예정인 최소 3인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비영리 모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27seesaw@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6월 11일까지 접수된 공모사업은 서류심사, 발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10개 팀을 선정하여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장종태 청장은 "미래 동량들을 위한 청년지원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어 산재보험까지 지원 확대

市, 1인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업무상 재해 보상 가능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시 안전망 역할로,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1인 자영업자는 9만8천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685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571명으로 평균 가입률이 0.7% 정도이다.

대전시에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 위기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시 납입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지원과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인 자영업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 가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1인 자영업자 지원을 고용보험에 이어 올해 산재보험까지 확대 추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나 산재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팔 걷어'… 조례 본격 시행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공포·시행

동구(구청장 황인호)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행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를 막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구 차원에서 수립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구민·직원 대상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홍보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최근 다양해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안전도시 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조례 시행과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활동 및 탐지 장비 대여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동네 돌봄' 본격 추진

유성구 노은3동

유성구(구청장 정용래) 노은3동은 유성맞춤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형 지원사업 「우리동네 돌봄」준비를 끝마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동네 돌봄」은 주민이 직접 마을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기획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다.

유성구 노은3동은 지난 4월 돌봄 발굴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거쳐 1인 가구 구성 비율이 높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강한 삶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힐링'을 테마로 4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며 본격화한다.

세부사업은 ▲정서·심리돌봄(하하웃는day) ▲건강돌봄(튼튼걷는day), ▲주거환경 개선(뚝딱정리day) ▲사회활동지원(해피리본(Re-born))이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 정●●●

우수부서 시상식

양승조 충남도지사= 1일 오전 9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021년 시군 평가 우수기관 및 합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식에 참석.

충남자치분권포럼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1일 오전 9시 50분 충남도서관에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충남자치분권포럼에 참석.

행정역량 강화교육

황선봉 예산군수= 1일오후 3시 30분 추사홀에서 열리는 2021년 6월 월례모임 및 행정역량 강화교육에 참석.

제115주년 제향식

김석환 홍성군수= 1일 오전 11시 홍주의사총에서 열리는 병오 홍주의병 순의 제115주년 제향식에 참석.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온라인축제 새 지평 열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 많은 지자체서 벤치마킹 방문

홍성군의 대표축제인 '홍성역사인물축제'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형식으로 개최돼 온라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군에 따르면 홍성역사인물축제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온라인 콘텐츠 중심으로, 이후 30일까지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홍주읍성 주변에서 운영하며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재조명했다.

홍성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로잉 뮤지컬 '이응노, 길'과 이응노 노래공연,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이응노생가 소개영상, 이응노의 집에서 열린 다양한 공연 등 온라인 콘텐츠를 실시간 생중계 및 게시하였으며,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응노 관련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기간 동안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한 콘텐츠 조회수는 약 16만 명으로 특히 유튜브 채널 콘텐츠와 라이브 커머스의 조회수는 15만회를 웃돌며 전국의 많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한편 서울 강동구청,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충남 금산군, 서산시, 경북 성주군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 축제 관계자들이 홍성을 방문,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코로나에 유연하게 대응한 홍성역사인물축제의 특·장점들을 벤치마킹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한희정 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축제들이 주제와 부합되지 않은 온라인 콘텐츠에 집중하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아예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인물축제처럼 온·오프라인 개최와 모든 프로그램에 주제를 담으려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축제 개최는 매우 도전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코로나로 지친 많은 분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축제에 대한 많은 성원과 아무 사고 없이 축제가 마무리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군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한국사진작가협회 예산지부 회원전

2021년도 한국 사진 작가협회 예산지부 상반기 회원전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산군청 1층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한국 사진 작가협회 예산지부는 연말까지 예산관광사진으로 예산 지역에서 2회, 서울, 경기, 세종 등 타 지역을 순회하며 총 5회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회원전의 취지는 '예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재로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회원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는 것이 예산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예산지부는 사진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작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부채 30점, 한국화 6점, 서각 5점, 문인화 13점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봄을 맞아 새로운 출발과 시작의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다수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예산지부 관계자는 "군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사진을 통해 색다른 풍경을 느끼고 아름다운 계절이 주는 생동감을 마음껏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이영렬 기자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해소 홍성군 주말농장 임시주차장 조성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소장 최인수)는 내포신도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농장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주말농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돼있던 군민들에게 농사체험을 즐기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높은 호응을 얻어왔으나 이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업소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말농장 인근에 150평 규모의 임시주차장(18면)을 조성했다.

최인수 소장은 "주말농장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주말농장은 유휴지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농업체험과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 저소득 노인가구에 여민전 10만 원 지원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계절 포근애(愛) 2분기 사업

세종시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여상수·허남태)가 31일 저소득층에게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는 '사계절 포근애(愛)' 2분기 사업을 추진했다.

사계절 포근애(愛)는 계절에 따라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해 맞춤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분기에는 새 학기를 맞아 한부모 20가구에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분기 지원 대상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20가구로, 1가구 당 10만 원권을 동일 지급받는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며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 지원도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군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 공모

예산군, 6월 2일~8월 13일까지… 8월 25일 당선작 발표

예산군은 2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계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군립도서관 이용고객의 편의증진 및 쾌적한 독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공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예산 군립 도서관은 2021년 균특회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6억 원, 자체 16억 원 등 총사업비 32억 원이 투입돼 건축연면적 630㎡ 증축과 기존연면적 1283.21㎡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설계비용은 1억7800만 원이다.

응모자격은 건축사 면허 및 인테리어설계 면허를 소지하고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응모방법은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방식)으로 하고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한다.

응모신청서 등록은 6월 11일 오후 6시까지며, 장소는 예산군립도서관 1층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오는 8월 20일 응모된 작품을 대상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진행해 당선작을 8월 25일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 및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예산군립도서관 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내 거점도서관인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공모에 역량 있는 업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이영렬 기자

코로나19 방역활동

예산군 재향군인회

예산군 재향 군인회(회장 한상목)는 지난 5월 2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기차역과 종합터미널, 주요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방역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예산역을 비롯한 관내 기차역 3개소와 예산종합터미널 및 읍·면 주요 버스승강장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활동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한상목 재향군인회장은 "최근 확진자가 700여 명을 오르내리고 있어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 또한 중요하다"며 "예산군이 완전한 코로나19 청청지역이 될 때까지 방역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영렬 기자

'충남형 배달앱' 수수료 0%대로 더 낮춘다

충남형 민관 협력 배달 서비스 이달부터 3개 시군 시범사업 시행

충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도 득이 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수수료 0%대 배달앱을 선보인다.

도는 오는 6월부터 계룡·서산·홍성 3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충남형 민관협력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충남형 민관 협력 배달 서비스는 도내 지역화폐와 연계한 배달앱을 구축해 주문·결제 수수료를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을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 도는 그동안 충남형 민관 협력 배달 서비스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도·시군·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도지회·사업자 간 업무 협약, 조폐공사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0%대 배달 수수료는 조폐공사와의 지역화폐 연계 협의를 통해 성사됐다.

충남형 민관 협력 배달 서비스를 통해 결제 방식을 모바일(간편결제) 지역화폐로 선택해 주문하면 결제 수수료 없이 주문 수수료만 0.9% 발생한다.

카드(신용, 체크 등) 이용 시에는 결제 수수료 0.8%, 주문 수수료 0.9%로 총 1.7%의 배달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는 평균 수수료가 10~18%에 달하는 국내 유명 배달업체들과 2%대인 타 지자체 공공 배달앱보다 낮은 전국 최저의 배달 수수료이다.

충남형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1000만 원 기준으로 민간의 배달 수수료(10.1~18.3%) 및 별도 부가 수수료(등록비·광고비 등)와 비교했을 때 166~171만 원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화폐 구매 시 10% 할인, 별도 추가 할인쿠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소비자에게도 큰 장점이 있다.

도는 가맹점 모집 및 프로그램 설치 등 사전 작업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시범지역을 우선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0%대 배달 수수료를 제공하는 충남형 민관 협력 배달 서비스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충남형 배달앱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042)538-3030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129(봉명동) 우경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예산군 예산읍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개최

예산군 예산읍 새마을 남녀지도자 협의회(회장 곽노민, 조흥순)는 지난 5월 29일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에서 2분기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각 마을 등지에 그동안 방치됐던 고철, 폐지, 빈병, 헌옷 등 숨은 자원을 수거했다.

곽노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는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활력 있는 예산읍을 만들도록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흥돈 예산읍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고 모두가 함께 활력 있는 예산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이영렬 기자

차별없는 공정한 세종일터 찾는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노동자간 차별을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 확립을 위해 관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세종형 공정일터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세종형 공정일터는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발굴한 사업으로, 노동자간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일터 내 '공정' 가치를 확립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 일자리분과위원회를 통해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목적을 둔 세종형 공정일터를 발굴하기로 결정, 지난해부터 공정일터를 선정해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고용평등 실천과 고용차별 개선에 지향점을 설정하고 올해 공정일터로 총 3곳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일터 실천의지 ▲공정일터 이행·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총 3가지 평가기준을 정량·정성 세부지표로 평가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 등 노력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는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서, 인증현판 교부와 함께 기업별 1,350만 원(자부담 150만 원)의 노사상생지원금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세종시에 위치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첨부양식을 받아 작성 후 기간 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공정일터 우수기업 선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정책과(☎044-300-4833), 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44-862-8536)로 문의하면 된다.

서종선 시일자리정책과장은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일터 우수기업 모집에 관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천안흥타령관, 다문화꾸러미 대여운영 기관 선정

인도네시아 다문화꾸러미 운영

천안흥타령관(관장 이종택)이 국립민속박물관 2021년 인도네시아 다문화꾸러미 대여운영 기관에 선정돼 '인도네시아 다문화꾸러미'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꾸러미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이해와 체험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만든 체험상자이다. 이번 다문화꾸러미는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생활, 옷, 인형, 놀이악기, 앙클룽(대나무악기) 총 5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천안흥타령관은 상반기 관내초등학교 초등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꾸러미 체험교실 '아빠 까바르(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를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다문화꾸러미 체험교실은 천안흥타령관에 상주하는 체험강사(일반도슨트)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월 4일부터는 어린이 ·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따(사랑합니다)! 인도네시아' 다문화꾸러미로 인도네시아 의상체험, 생활체험, 악기체험, 바틱모양색칠체험 등 프로그램을 흥타령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하고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자원봉사센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한

재래시장 장보기 용기내 캠페인

천안시자원봉사센터는 '도전! 플라스틱 제로, 1365 가족자원봉사단'이 지난 29일 천안중앙시장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재래시장 장보기 용기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기내 캠페인은 일회성이 아닌 다회용 용기를 사용한 장보기를 통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플라스틱 포장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용기 사용을 위한 용기를 내자'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가족자원봉사단은 직접 가정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장바구니와 소분주머니, 재활용품으로 만든 캠페인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직원 하트세이버 선정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이하 공단)은 유상훈, 최정혁 수영강사가 지난 28일 천안서북소방서로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 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금 전달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영신)이 31일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50만원 후원금을 천안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 4월 28일 자매결연 도시인 완도군 ·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주)이 코로나19 대응으로어려움을겪고 있는 천안시청공무원노조에 위로의 전복 100박스를 기부하며 이뤄졌다.

천안 강소특구 첫 1 · 2 · 3호 연구소기업 탄생

차세대 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중인 천안 강소연구개발특구

천안시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중인 천안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천안 강소특구)에 1 · 2 · 3호 연구소기업을 설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 강소특구는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아트센터', '엠엠아이티', '에이피에스' 3개 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했다.

연구소 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의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면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등록된 3개 기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기술을 출자한 기업들이다. '아트센터'는 자동차 도어용 비접촉센서를 개발해 차량도어 끼임사고 방지 기술 실용화를 촉진하며, '엠엠아이티'는 단열 및 항균 성능이 우수한 차량용 경량 에어덕트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에이피에스'는 전기자동차용 모터를 생산하는 기술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앞서 천안시는 천안을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한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해 작년 8월 정부로부터 최종 지정됐다.

천안시는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통해 미래형 전기자동차 부품, 수소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 연구개발(R&D)분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자체사업 ▲공동연구법인사업(3년, 5억 원) ▲미래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실현기술개발사업(2년, 3억 원) ▲차세대 자동차부품 육성 지원사업(연 5억 원) ▲자동차 클러스터 지원사업(연 4,000만 원) 등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4년간 8억 원을 출자하는 (가칭)천안펀드를 결성해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기업에 투자하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 강소특구의 연구소기업 설립은 이곳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사업화가 본격화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천안시는 특구 내에 연내 7개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표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분야 기업에 투자하며 4차산업혁명 대비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대학 · 기업체와 저출산 민관학 공동 대응

저출산 민관학 공동대응을 위해 11개 대학 · 18개 기업체

천안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민관학 공동대응을 위해 11개 대학 · 18개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민관학 공동대응 사업은 대학, 천안시, 기업이 한마음으로 일가정 양립과 결혼 · 출산 · 성평등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천안시는 저출산 극복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노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저출산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약기관에 가족사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11개 대학교는 양성평등 및 결혼 ·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립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8개 기업은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 가족친화제도 발굴 · 시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매년 2개의 우수참여기관을 선정해 가족친화기업인상을 수여하고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기업에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결혼과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행복하고 감동적인 일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 출산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회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 하며 젊은 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출산과 육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 대학, 기업과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29개 참여기관은 공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상명대학교, 선문대학교, 천안연암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라정밀, ㈜소부레이저, ㈜디지털, ㈜브레인MRO, ㈜ 새롬에프에스, ㈜씨에스테크, ㈜씨앤티, ㈜엔에프, 웅진보안시스템(주), 지니스(주), ㈜한국커리어잡스, ㈜ 현보, ㈜ 경동엔지니어링, ㈜ 경흥건업, ㈜ 미르지엔아이, ㈜세일종합기술공사, ㈜씨케이엘, ㈜한도이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립미술관, 전시교육 체험키트 '안녕! 지구박스' 제공

6월 5일 환경의 날 맞아 미술관 방문 어린이 관람객에 제공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천안시립미술관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미술관을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에게 <사이의 거리, 9시 47분> 전시교육 체험키트 '안녕! 지구박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안녕! 지구박스'는 현재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이의 거리, 9시 47분> 전시의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관람 후 집에서도 쉽게 전시를 이해하고 스스로 의미를 재구성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지 및 친환경 교구재로 구성했다.

특히, 예술가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과 질문을 바탕으로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주변을 탐색하고 이와 함께 솝클레이, 천연 수세미 식물 등 친환경 재료를 통한 지구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매체로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어린이 관람객을 동반한 가족이라면 현장에서 SNS 관람 인증 미션을 수행하고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예술의전당 누리집(www.cnac.or.kr)을 참고하거나 미술관팀(☎041-901-6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꽃길 걸으러 '천안천변공원'으로 오세요!"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시민에게 소소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천변공원 불당3교 · 불당4교에 난간걸이 화분을 설치해 도시경관을 다양한 색채로 물들였다.

난간걸이 화분에 식재된 초화류는 페튜니아 오페라, 비텐스 썬빔 외 7종이며, 그 중 메인 꽃인 페튜니아는 '당신과 함께하면 편안해집니다.'라는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 불당3교에 식재된 모하비 오렌지라는 꽃은 종이꽃으로 만져보면 종이 같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질감을 가지고 있다.

식재된 꽃은 5월~6월 말까지 볼 수 있으며, 시는 9월~10월에 가을꽃을 추가로 식재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속해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천변공원에 조성된 다채로운 꽃길이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라며, 예쁜 꽃말처럼 꽃길을 통해 소소한 행복과 편안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축구단, 울산시민축구단에 1-0 승리 '리그 2연승'

천안시축구단은 지난 5월 29일 오후 천안종합운동장서 열린 2021 K3리그 11라운드에서 울산시민축구단에 1-0 승리로 리그 연승행진을 거뒀다.

31일 천안시축구단에 따르면 천안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 경기를 이어가던 중 후반 44분 이민수 결승골로 2연승을 차지했다.

제종현이 골문을 지켰고 심동휘, 이용혁, 한부성, 감한솔이 수비라인을 형성했다. 이민수와 박재우가 수비라인 앞을 지켰고, 조재철, 정준하, 이예찬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했다. 최전방 원톱으로는 조주영이 낙점됐다.

전반 초반 천안은 다양한 공격 전개를 통해 주도권을 잡았다. 이예찬과 감한솔을 활용한 오른쪽 크로스 공격과 함께 울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린 스루패스를 통해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8분 박재우의 뒷공간 패스를 정준하가 떨궈주고 이민수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문을 빗나갔다. 울산도 간헐적으로 오른쪽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이어나갔으나 천안의 수비벽에 번번이 막혔다.

후반 중반 집요하게 울산의 골문을 두드리던 천안이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34분 왼쪽 측면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수 맞고 뒤로 흐른 볼을 이민수가 정확한 헤더로 밀어 넣으며 1-0 리드를 가져갔다. 선제골 이후 천안은 계속해서 울산의 골문을 두드렸다. 후반 44분 감한솔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이민수의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며 추가골을 기록하진 못했다.

후반 막판 울산은 동점골을 위해 천안의 골문을 위협했고 장신 외국인 공격수 폴을 투입했지만, 천안의 수비집중력이 돋보였다. 천안은 울산에게 제공권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리드를 지켜냈고 1-0으로 경기를 마쳤다.

리그 2연승을 가져가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천안은 12라운드에 휴식을 갖고 오는 6월 9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창원시청 축구단을 상대해 3연승에 도전한다.

천안=이정복기자

동 정

정례회 개회식

박상돈 천안시장= 1일 오전 11시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

제1차 본회의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1일 오전11시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재.

천안지역 2021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천안시는 2021년 1월1일 기준 29만5,890필지(동남구 17만5746필지, 서북구 12만1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 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 산정해 각종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동남구 평균 7.30%, 서북구 평균 8.31% 상승했으며, 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여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천안시 누리집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 · 공시된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 · 공시 된다.

이의신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면 되고 문의 및 열람은 동남구 민원지적과(☎041-521-4125, 4129) 또는 서북구 민원지적과(☎041-521-6510, 6512)에서 할 수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신뢰받는 청렴 천안' 청렴 및 역량강화 교육

천안시가 31일 시청 봉서홀에서 오전 9시, 오후 2시 2회에 걸쳐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렴 및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1회차는 공사, 용역 관리 · 감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과 건설사업 관리, 건설안전 실무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3시간에 걸쳐 진행했으며, 2회차는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1시간에 걸쳐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한 공공재정연구원 박인서 강사는 외부업무처리에서 나타나는 비위 유형별 사례, 천안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제시했다.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한 도화엔지니어링 조태형 강사는 건설사업의 관리 및 건설안전에 대한 실무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꿈해비타트와 협약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현수)는 자활사업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산시 관내 사회적기업인 ㈜꿈해비타트(대표이사 백진우)와 28일 지역사회복지 연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대전사랑의열매 '착한변호사' 단체가입 대전지방변호사회 임성문 회장의 법무법인 베스트로와 정훈진 제1부회장의 법률사무소 담현을 비롯해 비엠법률사무소 박병모 변호사, 최성아 변호사 4명이 31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태희)의 착한변호사 캠페인(매출액의 3만원 이상 기부를 통해 나눔에 실천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의 일종)에 동참하며 단체가입했다.

청양소방서, 인명피해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피난 방법 홍보

청양소방서(서장 김경호)가 아파트 피난시설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피난 방법' 홍보에 나섰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로 복도 또는 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세대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아파트 피난시설로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있으며, 아파트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피난시설을 알고 있어야 유사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

먼저, 경량칸막이는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로 경계벽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한 피난시설이다.

실내 대피공간은 화염 및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에 설치된 내화구조로 된 공간으로 화재에 1시간 이상 버틸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 발코니, 에어컨 실외기실 등에 설치해 화재 시 내림식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로써 직하층으로 피난이 가능하다.

유충섭 화재대책과장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을 활용해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대피훈련을 해보는 방법도 좋다."고 전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보령소방서, 호스릴비상소화장치 설치

재난약자시설에 산불방어선 구축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에 보령시 청소면 소재 브라보노인복지센터에서 산불방어선 구축을 위한 호스릴비상소화장치 기증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산림과 인접한 관내 재난약자시설 6개소에 대형 산불을 대비한 호스릴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기관은 보령소방서, 한국중부발전,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이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시책 설명(시책명: 산불「디펜스」, 호스릴「안전펜스」) ▲호스릴비상소화장치 기증식 ▲시설 관계자 사용법 교육 및 방수 시연 등이다.

방장원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 참여해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난약자를 안전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늘 고민하며 힘쓰겠다"고 전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냉동피자 '나트륨 · 포화지방 과다'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결과… "구매 전 성분표 꼭 확인"

시중에서 판매되는 냉동 피자에 나트륨과 포화 지방이 과도하게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시민단체 소비자시민모임은 시판 중인 냉동 피자 16개 상품의 영양 성분과 표시 사항 등을 시험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냉동 피자 1판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551.9㎎으로 1일 기준치(2000㎎)의 77.6%를 차지했다.

포화 지방의 경우 14.9g으로 기준치(15g)의 99.3%였다.

CJ의 '고메 그릴 피자 콤비네이션'이 1901.0㎎으로 가장 많고, 닥터 오트커(Dr. Oetker)의 '디스토란테 모짜렐라 피자'가 1101.3㎎으로 가장 적었다.

포화 지방의 경우 상품별 차이가 컸다.

피코크의 '콰트로 치즈 피자 콤비네이션'은 100g당 5.0g, 오뚜기의 '콤비네이션 피자'는 2.8g으로 그 차이가 1.8배에 이른다. 1판 기준 피코크 콰트로 치즈 피자 콤비네이션(22.9g), 피코크 콰트로 치즈 피자 불고기'(17.8g), 청정원 '오리지널 콤비네이션 피자'(17.2g), 오뚜기 '치즈 듬뿍 피자'(17.0g), 노브랜드 '불고기 피자'(16.1g), 풀무원 "노엣지 꽉찬 토핑 피자 페퍼로니 콤비네이션'(15.4g) 5개 상품이 1일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영양 성분 기준'에 따라 냉동 피자를 프랜차이즈 피자와 동일한 식사 대용으로 볼 경우 조사 대상 상품의 대부분인 14개가 고열량 · 저영양 식품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소시모는 "냉동 피자를 먹을 경우 나트륨 · 포화 지방을 많이 섭취할 가능성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냉동 피자를 구매하기 전에 포장지에 적힌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프로포폴 과다 처방 의사 89명에 '서면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 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 · 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 ·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한 것이다.

프로포폴의 경우 ▲전신마취 · 진정 목적으로 처방 · 투약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 ▲적정량 투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이 있다.

하지만 ▲전신마취 수술 · 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 · 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 등의 이유로 일부 의사들에게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바 있다.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 · 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하지만 처방사유 타당성이 인정된 12명의 제외한 89명에 대해 프로포폴 안전기준 사용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식약처는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김정연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 · 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프로포폴 · 졸피뎀 · 진통제 · 항불안제 등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내년부터는 ADHD, 수면진정제 등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한다.

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1538-3030

세종시 '존폐기로' 여행업계에 공유사무실 무상지원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7곳 공모… 6월 1~8일 접수

세종시(시장 이춘희)와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존폐의 기로에 선 관내 여행업계를 지원하고자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 일부를 공유사무공간으로 제공한다.

이 사업은 여행업의 사업유지를 위해 고정비 부담이 가장 큰 업무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관광협회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총 7개 여행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 공유사무실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기존 입주기업과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경영 컨설팅, 관광기업 간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해 여행업계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입주기간 연장 및 공유사무실 추가 조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6월 1일부터 8일까지며,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세종시 소재 여행업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발한다.

제출서류는 세종시 관광협회가 관내 여행업체에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관광협회(☎044-867-6919)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태선기자

예산소방서, 군의원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체험 실시

예산 소방서(서장 김오식)가 지난 28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홍원표 예산군 의회 의원 "국민의 힘, 예산군라선거구"과 함께 소방 통로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동승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체험은 지역인사가 직접 참여하여 화재 · 구조 · 구급 발생 시 불법 주 · 정차로 인한 출동 장애 등을 직접 경험해보고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동승체험에 나선 홍원표 예산군의원은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소방차에 탑승해 보는 등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

홍원표 예산군 의원은 "이번 동승체험은 긴급출동 시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과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역 군민들이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진 화재 대책 과장은 "소방차 출동 시 길을 비켜주는 군민의 작은 배려가 생명을 구하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승체험 전과 종료 후 차량 손잡이, 좌석을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예산=박제화기자

건협, 20~40대 A형간염 예방접종 전년보다 2배 증가

20~40대 연령구간별 및 성별 A형간염 1차

예방접종률, 20대 여성 전년도 비해 가장 많은 증가 보여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자료에 따르면 건협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을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A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받은 20대부터 40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67.6%)보다 여성(122.6%)의 접종 증가율이 더 높았고, 연령대별 접종 증가율은 20대(113.5%)>30대(93.9%)>40대(82.1%) 순으로 높았다.

20대 여성의 예방접종률은 전년대비 138.3% 늘어나 성별 연령구간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40대 남성의 예방접종률은 58.7%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건강증진의원 노은중 원장은 "A형간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협 건강증진의원에서 A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받은 20대~40대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A형 간염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30 · 40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20 · 30대는 항체검사 없이, 40대(1980년 이전 출생자)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6~18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20대부터 40대의 A형간염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송병배기자

당진署, 세한대학교 관계자, 총학생회

여성안심귀갓길 합동 범죄예방진단

당진경찰서는 최근 세한대학교 관계자, 총학생회와 함께 세한대학교 인근 여성안심귀갓길 내 원룸촌에 대한 합동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진단은 당진경찰서와 세한대 총학생회가 함께 대학교 주변 원룸촌 내 어두운 보행로를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함께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활동이었다.

합동진단 후 학생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에 대해서 경찰예산의 일부를 투입해 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학교측과 협의해 설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당진시시와 문제점을 공유해 가로등을 신설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충남소방, 기존 단체 합창 방식에서 4인 이하 가족 비대면 경연

어린이 119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

충남소방본부는 '제12회 충남어린이 119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충남어린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소방동요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 · 집합 활동이 제한되는 환경을 고려해 기존 유치원이나 학교 단위의 단체 참여 대신 가족 단위 영상 경연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치부와 초등부 나눠 진행하는 대회의 접수 기간은 오는 4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참가 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둔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하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가까운 소방서에 신청서와 참가영상(5분 이내)을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대회 계획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16개 소방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대덕구에서 수상레포츠 짜릿함 즐기자

대청수상레포츠센터 6월 1일 개장,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대전 대덕구 수상레저 시설인 대청수상레포츠센터가 6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오전10시~오후6시/매주 월요일 휴장) 운영된다.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길목 에코공원(대덕구 대청로 167)내에 위치한 대청수상레포츠센터는 대덕구에서 유일하게 금강에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금강변 경치를 감상하며 카약과 수상자전거, 오리배, 범퍼보트 등을 즐길 수 있다.

개장과 함께 대덕스포츠클럽에서는 오는 5일부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운영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카약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지난달 31일 부터 온라인 접수(https://sat.sportal.or.kr)으로 시작됐고 참가비는 무료다.

김태선기자

아산시, 폭언 · 폭행 등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28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성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상황별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녹음실시,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해 대응력을 높였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도 초·중·일반고 70% 과밀학급… 대책 절실

전교조 충남지부 "평균의 함정에 빠져 과밀학급 방치 안돼"

충남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가 교육통계(2020년 4월1일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의 과밀학급 평균은 70%였던 반면,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는 30%에 그쳤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급 5961개 가운데 과밀학급이 3698개(62%)였으며 30명 초과인 초과밀학급도 275개나 됐다. 지역별로는 천안과 아산, 당진 등 큰 도시가 이를 주도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2.9명이나 됐고, 다른 초등학교도 31.5명이었다. 당진의 한 초등학교도 29.9명이었다.

중학교와 일반고를 보면, 과밀학급 비율이 각각 80.7%, 85.1%에 달했으며, 30명 초과인 초과밀학급이 중학교 741개, 일반고 380개였다. 특히 일반고 18개 학급은 학생 수가 36명 이상이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과밀학급이 악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학교와 일반고 역시 초등학교처럼 천안과 아산 등 큰 도시가 주도했다. 천안의 한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2.6명이었고, 아산의 한 고등학교는 32.9명이나 됐다. 반면,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과밀학급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충남 전체 특목고 학급 116개 가운데 과밀학급은 31개(26.7%)밖에 안 됐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인 학급은 73.3%나 됐다.

김종현 지부장은 "과밀학급은 전교조가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 수업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와 평균의 함정에 빠져 과밀학급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6월1일부터 1달 동안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법안 통과를 촉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충남교육청, 5월 세계문화체험의 달 운영 마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한 달을 '세계문화체험의 달'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높이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31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세계시민교육과 다양한 문화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기존 다문화 주간을 확대하여 '세계문화체험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통과 공감의 청렴문화 공직자가 앞장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민희)은 1일 서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장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통과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천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당진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태안 유치원, 다소미주간 운영 태안유치원(원장 원문자)은 24일부터 28일까지 전체원아 118명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체험 다소미 주간을 운영했다. 다소미 주간에는 각 학급 교실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동화 듣기, 노래 배우기,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다문화 보드게임방 운영을 통해 유아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놀이체험을 진행했다.

대천여상, 고졸 창업지원 나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백미자)는 28일 창업컨설턴트 이형석 박사가 진행하는 창업교육 100시간 대장정의 개강식을 가졌다. 이 창업교육은 나사렛대학 창업보육센터와 대천여상이 지난 4월 21일 업무협약을 갖고 고졸 창업지원 성공을 위하여 KBS, MBC, EBS 등에서 창업 관련 패널로 활약하는 이형석 박사를 초청하여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숲에서 가족과 함께 인형극 즐겨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원장 김종연)은 31일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극단어울림'과 함께 숲속 문화공연 '그림자 인형극-영주 민속 이야기'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숲속 문화공연 참가자들이 인형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선문대, 2021 상반기 '현장실습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 링크사업단(단장 김종해) 산학협력교육센터(센터장 윤성철)는 현장실습 참여율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체험수기 및 콘텐츠 2개 분야에 24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11명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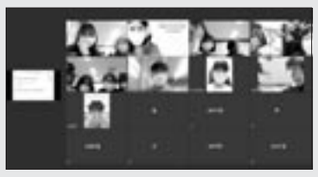
대상 수상작은 체험수기 분야의 연어에게 길을 묻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에게 돌아갔다.

수상자 임성호 학생은 "현장실습 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현장실습을 하면서 수산생명의학 전공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의 수상작들은 선문 온라인 경진 플랫폼(lindicksunmoon.a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금산도서관 '어르신 자서전 편찬' 청소년 봉사단 사업설명회



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관장 박찬희)은 지난 27일 '어르신 자서전 편찬' 청소년 봉사단 사업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자서전 편찬'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는 기성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따뜻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주고 노인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세대공감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금산고등학교와 금산여자고등학교 학생, 지도 교사 등 26명이 참여하였다.

내용은 사업 상세 일정과 편찬을 위한 인터뷰 진행 방법, 원고 작성법 등을 소개하고 궁금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산=이정복기자

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저작권 침해 누리집 합동단속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국제공조수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 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추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세종시교육청 '5월 금연의 달' 행사 추진

여러 학교 및 금연지원단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금연 홍보 행사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을 금연 홍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학교 및 금연지원단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금연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과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연지원단 학생들의 홍보활동을 통해 실제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또래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활동을 지원하여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5월 금연의 달' 기간 중 4개교(하이텍고, 도담고, 세종고, 고운고)의 학생, 교직원과 함께 해당 학교의 교문과 학교 주변 아파트, 상가 등 흡연 발생구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세계금연의 날인 5월 31일에는 세종시교육청 1층에서 '청소년 금연콘서트'가 개최됐다. 콘서트는「코로나시대, 담배와 거리두기」를 주제로 금연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세종예술고 학생들의 끼를 살려 재능기부 작품 제작과 공연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금연지원단 중 미술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는 포스터 작품을 전시하고, 음악과 학생들의 다함께 '금연송' 퍼포먼스에 이어,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네 담배향이 느껴진거야' 노래 공연과 현악 2중주, 현악 4중주 공연을 선보였다.

아울러 공연예술과 학생들이 제작한 흡연예방·금연 홍보 영상과 자료는 각급 학교에도 공유하고 배부해 학생들이 스스로 금연에 참여하고 흡연예방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종=김태선기자

공주대 직원회,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발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

국립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직원회는 세종시 부지 매입을 위한 학교사랑1평 갖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등 대학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세종시 부지매입 발전기금 기탁식 행사는 31일 총장접견실에서 원성수 총장을 비롯한 김왕식 대외협력본부장, 임은정 부본부장, 윤광진 제9대 전 직원회장, 강대성 직원회 사무국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주대에 따르면 세종캠퍼스 부지 매입을 위한 학교사랑 1평 갖기 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교직원 및 동문, 기업체 및 지역사회 등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5월 현재 8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제9대 전 직원회 윤광진(행정사무관) 회장은 지난 3월 직원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발전기금 모금 참여를 논의하고, 온라인 의견수렴(투표)을 통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직원회비 중 1천만원을 세종캠퍼스 부지 매입에 써달라고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교육청, 수업앙상블 초·중등 교원 전체 대상 실시간 특강 만족도 99%

가까이 다가온 미래교육과 온라인 수업… 학생 입장에서 체험하기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최적화된 학교교육력 강화를 위해 2021학년도 대전 원격수업개선 수업앙상블 특강(2, 2-1차)을 지난 5월 11일과 5월 28일에 실시했다.

특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9%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황리에 마쳤다.

수업앙상블 특강은 원격수업개선을 위한 교사 성장 지원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2차 특강은 "가까이 다가온 미래교육과 온라인 수업"으로, 2-1차 특강은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체험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차 특강은 초·중등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교육전문직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 광주고등학교 김정식 수석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었다.

또한 2-1차 특강은 2차 특강과 연계하여 교사들이 실제로 학생의 입장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체험하며 운영 방법을 모색하도록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경기 광주고 김정식 수석교사는 '학생의 입장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쌍방향 수업 만들기에 대해 생생하게 특강을 펼쳐 나갔다. 특히 강의 내용에 맞추어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끄는 수업자료 등을 공유하여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특강을 들으며 질문과 의견을 실시간 댓글로 올렸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활발한 소통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

특강 종료 후 참여자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강 내용이 직무수행 및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99%가 응답하였으며, 수업앙상블 특강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 동의도 99%가 응답하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정환기자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 모집

공주시, 총 60명으로 구성…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참여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6월 7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함께 운영할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의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할 수 있다.

시는 공개모집 30명을 비롯해 16개 읍·면·동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16명, 학계 및 사회단체 관련 추천 14명 등 총 6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며, 임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접수는 시청 주민공동체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자치분권팀(041-840-8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종 주민공동체과장은 "지난해 조직 개편시 업무조정으로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가 올해부터 주민공동체과로 이관됐다."며,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태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6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읍면사무소 이의신청 가능

태안군이 5월 31일자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군의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2085필지가 늘어난 21만 7182필지로,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13%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20만 5천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511-1번지로 892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홈페이지(www.kras.go.kr), 태안군청 홈페이지(www.taean.go.kr)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8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주민들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이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격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쓴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에서 첫 과수 화상병 발병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합동예찰 실시·의심 주 빠른 신고 당부

천안, 아산에 이어 당진에서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 확진 농가가 발생했다. 이번에 확진받은 5곳의 사과농가 규모는 6.85ha로 자체 예찰기간 동안 의심 주로 분류돼 정밀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병의 일종으로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죽는 병으로, 4월 중순 이후 사과, 배, 비파, 모과 등의 작물에 발생하는데 벌과 파리 등 곤충과 비바람, 농작업 도구 등에 의해 전염된다.

과수 화상병은 예방약과 치료제가 없기에 병에 걸린 나무는 모두 폐기해야 하며 사과, 배, 자두, 매실 등 화상병에 취약한 작물은 3년 동안 심지 못한다.

지난 28일부터 화상병 발생 반경 5km 내의 185개 농가 164ha에 대한 합동예찰을 추진 중이며, 당진시에서는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 납부의 달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할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에 대해 매1개 월 경과 시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며,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42), 세정과(041-540-2281)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마트 대덕점에 곰표 치킨너겟과 플렉스팬이 왔다?! 롯데마트 대덕점에서는 최근 콜라보레이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곰표'와 손잡고 '곰표 치킨너겟', '곰표 플렉스팬'을 선보인다. '곰표 치킨너겟'은 100% 국내산 계육과 곰표만의 레시피로 더욱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곰표 플렉스팬'은 주방용품 전문 업체 해피콜에서 만든 팬으로 굽고, 볶고, 끓이는 모든 요리에 사용이 가능하며, 수익금 중 일부는 북극곰 살리기 캠페인에 기부할 예정이다.

당진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79명의 합격자 배출

고등학교 졸업 52명·중학교 졸업 27명 합격증서 받아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올해 제1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1회 검정고시에서 당진시 꿈드림은 83명의 응시자 중 고등학교 졸업 52명, 중학교 졸업 27명으로 총 79명의 전체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날 합격증서 수여식에는 구본휘 평생학습체육과장이 참석해 합격증서를 수여했으며, 격려사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의 공간'이다.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대비반과 함께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건강검진, 문화체험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당진=최근수기자

충남도농기원 '우리 쌀 가공 식품 활용 전문교육' 실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8일까지 쌀 가공 운영자 및 농촌체험 농장주를 대상으로 '우리 쌀 가공 식품 활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지역리더 육성을 위해 네 차례로 나눠 추진한다.

실습은 감자·고구마빵, 계란빵 등 쌀을 활용한 요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쌀 베이킹 과정을 받은 교육생들은 인기 있는 쌀 빵집을 운영하는 강사로부터 쌀 빵제조 교육을 받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쌀 소비 지역 리더들을 통해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빵을 밀가루를 대신한 쌀로 만들면서 지역사회 쌀 소비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선포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9일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선포했다.

청양군 청소년의 날은 지난 17일 제정하고 이날 공포한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에 근거했다.

청양군은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군은 이날 청소년문화의집 야외 공간에서 청소년의 날 선포식과 함께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고 모범 청소년 표창, 기부금 및 장학금 전달, 청소년동아리 공연 행사를 다채롭게 열었다.

김돈곤 군수는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 선포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모든 청소년이 각자의 꿈과 미래를 눈부시게 가꿔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청양군청소년재단(이사장 김윤호)은 하루 앞선 28일 청양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청소년 전문 패널과 청소년,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정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양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재단의 청소년정책 플랫폼 역할과 차별화된 청소년활동, 시설 재구조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기준 청양군의원은 충남도내 최초 제정한 '청양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2022년 시행 예정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성지헌 청양군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청소년 참여예산제와 성인·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직영 운영 본격 시작

고객센터 위탁 운영 방식에서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3년간의 고객센터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1일부터 고객센터를 직영 운영한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고객 접점을 일원화해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개소한 이래, 고객센터 위탁 운영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고객센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번 고객센터 직영 운영의 계기가 됐다.

심사평가원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19년 1월에 고객센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데 이어 작년 하반기 동안에는 전환인원, 전환방식, 보수체계 등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주요 협의안건들을 노동조합과 협의해 원만히 전부 결정했으며, 올해 4월 1일에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

또한, 정규직화와 동시에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 결정에 따라 그간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고객센터를 원주로 이전했다. 강원혁신도시 본원 인근 지식산업센터에 상담원 1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고객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3월 29일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고객센터 이전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원 충원을 위해 3월부터 심사평가원 신규 상담원 공개채용을 진행했으며, 40여명의 신규 상담원이 5월 31일부터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고객센터 직영 운영을 시작한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보건의료전문 고객센터로서 그간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특히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11년 연속 선정되는 기염을 토해냈다.

작년에는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AR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RS메뉴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0 ARS 우수 콜센터로 공공기관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상담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및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고객 상담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상담원의 50% 정도가 신규 상담원으로 운영되는 상황 등 힘겨운 과도기를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 특화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상담원 역량향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안정화시키고 보건의료전문 우수 고객센터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동정

업무협약식

오세현 아산시장=1일 오전 9시 시민홀에서 열리는 월례 모임과 오후 1시 30분 ㈜수퍼빈에서 열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자원순환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

임시총회

김홍장 당진시장=1일 오전 9시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열리는 6월 직원 만남의 날에 참석, 오후 1시 서울 공군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1년 도시재생 협치 포럼 임시총회에 참석.

조례규칙심의회

가세로 태안군수=1일 오후 4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

모내기 행사

김돈곤 청양군수=1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면 기덕리에서 열리는 친환경 벼 모내기 행사에 참석.

아산시

아산시 차량 상속이전 등록절차 안내 연중 시행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차량의 상속 이전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 납부 등 시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 상속이전 등록절차 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 또는 폐차가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이륜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각각 최고 1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한,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자동차 관리의 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과태료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상속 이전이나 폐차 말소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종열 차량등록과장은 "차량 상속이전 관련법규 인식 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나서

태안군,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해안,·가뭄·대설 대책 마련

태안군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 했다.

군은 지난 3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관계자, 용역사 등이 모인 가운데 '제2차 태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태안 지역 전체 515.88㎢ 면적을 대상으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9개 유형의 재해에 대한 조사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보고회에 따르면, 군은 '군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태안'이라는 비전과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재해

예방사업 이행률 제고, 방재성능수준 향상,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 체계화를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방사업 ▲연안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내년 9월까지 본안을 작성해 충남도 협의 후 내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아산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8만33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8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온천동 소재 상업용지로 ㎡당 494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내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25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한국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 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가조사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지역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정성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 청소년문화의집 디베이트 프로그램 참가자 모

토론·사회이슈·스피치 등 관심 있는 청소년 모두가능

당진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관내 청소년(14세~16세) 20명을 대상으로 토론의 기초인 스피치, 글쓰기,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논제로 한 체계적인 토론을 제공해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 표현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청소년 디베이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당진시는 올해 2개 반 10명씩 편성해 소규모로 진행하며, 대학교 전임교수 급 강사진을 초빙해 총 16회기 프로그램으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3시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디베이트 프로그램은 2019년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매 활동 마무리 시 디베이트 대회에 참가해 2019년에는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디베이트 대회 대상, 문화유산 회복 디베이트 대회 대상(국회의장상), 2020년에는 문화유산 회복 디베이트 대회 연속 대상(국회의장상), 국회의원상 2점, 문화유산 회복재단 이사장상 2점을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얻어왔다.

모집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15일(17시)까지로, 신청방법은 당진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https://www.dangjin.go.kr/dj1388/sub03_00.do)에 게시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관련 사항 문의는 당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화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저출산 인식개선 가족사진 전시회 열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28일과 29일 청양읍 소재 청춘거리 내 (구)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행복 넘치는 가족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15가족이 참여했다.

구정서 미래전략과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변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전시회를 열었다"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버스승강장 LED 조명 설치

당진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시민안전 증진 기대

당진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을 설치했다.

당진시는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취약지역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우선 설치 대상지를 선정해 금년도 상반기 중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조명이 설치된 대상지는 승강장 주변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적은 어두운 지역과 학교, 마을회관, 공공기관 등 학생, 마을주민, 교통약자 등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승강장으로서 100개소를 우선 선정해 조명을 설치했다.

한편 태양광 LED 조명은 일반 조명보다 설치가 간편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별도의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조명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절차를 거친 16만5,2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 상승과 부동산 현실화 영향을 받아 지난해 대비 평균 8.77%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지가는 군청 홈페이지나 민원봉사실 전화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지가 확인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실,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 사안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가격과의 형평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 부동산관리팀(041-940-2151~5)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군 모내기철 병해충 발생·예찰

1억 2천만 원 들여 병해충 방제약제 농가(1만461ha) 배포

태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돌발해충 예찰과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를 위해 벼 병해충 예찰답의 모내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병해충 정밀예찰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벼 병해충 예찰답의 포자채집기, 무인자동공중포충망, 페르몬트랩 등의 장비로 태안 지역의 벼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 분석해 방제적기를 설정하고 병해충 발생 시 벼 재배농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31일 군에 따르면, 올해 멸구류, 먹노린재, 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의 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1만461ha의 농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 예찰과 방제에 힘써 농가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막을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배포한 약제를 유충 발견 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즉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농작물 병해충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041-670-5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논산시 현충일 추념식 축소 열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6월 6일 제66주년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추념식을 논산시 충령탑(강산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올해 추념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된다.

시는 참석 대상을 보훈단체장과 유족대표, 주요 기관장 등 30여 명으로 최소화하고 발열체크,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또한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을 위해 공식 행사가 끝난 후 헌화 및 분향 시간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념식을 축소하게 되었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속 시행

부여군, 임대료 인하해 준 건물주 대상 재산세 감면 추진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10%에서 50%까지이고 감면 한도액은 50만원 한도로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착한 임대인은 상시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군청 재무회계실 및 해당 읍면 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 운영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금연의 날 기념 금연 홍보관 운영

계룡고등학교 등굣길 '금연 캠페인' 실시

계룡시 보건소는 5월 31일 제34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홍보관을 지난 5월 24일부터 5일간 계룡고등학교에서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최근 계룡고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흡연율이 9.6%로 전국평균 6.7%보다 2.9%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소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와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흡연 학생들이 스스로 금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내에 금연 홍보 배너 및 흡연자 폐모형 등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알리는 금연 홍보관을 설치 · 운영해 금연의 폐해를 알리는데 집중했다. 아울러 흡연학생이 늘지 않도록 등굣길 학생들에게 금연 관련 리플릿과 홍보물을 병행 배부했다.

손병임 보건소장은 "세포, 조직, 장기 등이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흡연이 성인에 비해 손상 정도가 더 크고 니코틴 중독에 더 깊게 빠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금연 캠페인으로 담배연기 없는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주선웅기자

계룡청년회, 코로나19방역 활동 전개 계룡청년회(회장 송진섭)는 지난 5월 29일 10여명의 청년회 회원들이 신도안면 일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역 활동은 실외 어린이놀이터와 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계룡청년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개관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 가능 · 그동안 인근지역 이동 불편 해소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엄사면 도곡리 일원에 어린이 창의력 개발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한 아동이용시설인 '어린이 감성체험장'(이하 감성체험장)이 지난 5월 29일 개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최홍묵 시장과 이철성 건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의원, 계룡시의회 의원과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자의 개식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감성체험장 건립 경과 보고, 제막식 및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및 현장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관식과 함께 사전예약을 받은 60가족(오전 30가족, 오후 30가족)이 감성놀이, 숲놀이 등 체험프로그램, 재미진 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감성체험장은 폐교된 도곡초등학교 부지에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4265㎡, 건축면적 607㎡에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프로그램실, 감성체험놀이실, 감각창의놀이실, 장난감도서관, 야외놀이터 등 어린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감성체험장을 위탁 운영키로 했으며, 타 시군의 유사시설 벤치마킹, 어린이와 학부모 수요 반영 등 운영간 지속적인 보완사항 점검을 통해 감성체험장을 중부권을 대표하는 우수 어린이 체험시설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이용 및 체험활동 참여는 오는 6월 8일부터 온라인(www.gamseong.or.kr) 사전 예약제를 통해 가능하며,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회차 10:00, 2회차 13:30, 3회차 15:30) 운영 예정이다. 이용 관련문의는 (042-840-5702)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묵 시장은 "그동안 관내에 아동이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세종, 대전 등 관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지만, 감성체험장 개관을 통해 다양한 실내외 놀이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감수성 발달과 건강한 자아 형성을 위해 감성체험장 및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계룡=주선웅기자

약초가공 소물리에 과정 성료

서천군농업기술센터, 10회 약초 가공 교육과정 마무리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순종)에서 농촌 융 · 복합 산업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해 추진한 '2021 약초 가공 교육'이 교육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약초 가공 교육은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약초가공 및 상품화로 농업인의 생산적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주 1회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했다.

교육에는 정푸드 컨설팅 이정숙 강사를 초빙해 약초의 법제기초, 쌀가루 활용 약초가공, 건강차, 약초빵 등 지역 약용자원을 활용한 이론 및 실습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수료자에게는 약초가공 소믈리에 민간자격증이 수여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쌀가루, 마늘, 생강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약초가공 실습교육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수진 교육생은 "약초가 주는 영양학적 측면과 기능성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우리 지역농산물과 연계해 약초가공 전문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경 생활자원팀장은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약초들이 매우 많은 점에 착안해 이번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높은 관심과 교육의지를 보여주신 교육생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농가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부여군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토지 26만6952 필지에 대하여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 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에 의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여군청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군 시민봉사과, 읍 ·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후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부여=김성구기자

6월, 시원한 역사체험 하고 싶다면? 역!사이다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역!사이다 참가자 모집 안내

서천군청소년수련관(관장 신현일)은 서천군청소년어울림마당의 일환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오는 6월 19일 '역!사이다'를 진행한다.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역사체험 '역!사이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결합해 사이다처럼 시원한 역사체험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심어주고 우리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이번 역!사이다 프로그램은 102년 전으로 돌아가 독립투사들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유익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독립투사들의 고뇌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태극기를 정확히 알아보는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서천 지역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과 근현대 역사를 배워보는 '과거시험' 등 5개의 테마별 부스를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역!사이다 프로그램은 서천 지역 청소년 또는 군민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팀당 최소 2명부터 최대 5명까지 사전예약으로 진행한다. 하루 총 3회(1회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2회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 3회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로 운영할 예정이며 회당 5개 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또한 행사 당일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맞추어 입장 시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가 청소년과 지도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쓸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서천군청소년수련관 페이스북, 밴드 게시글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4286-3310)로 문의 가능하다.

동정

선포식

노박래 서천군수=1일 오후 2시 30분 한산모시관에서 열리는 제31회 한산모시문화제 친환경 축제 선포식에 참석.

기탁식

박정현 부여군수=1일 오전 10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열리는 세븐팜영농조합 굿뜨래 장학금 기탁식에 참석

논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 공시된 대상지는 29만9705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확정됐다.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041-746-5614)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검증 및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에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견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논산시 개별공시지가의 전년대비 평균지가 상승률은 전국 기준 9.95%보다 낮은 7.29%로 나타났다.

담배는 노답(No쏍) · 지금 노담(No 담배)

부여군, 세계 금연의 날 기념행사

부여군보건소는 제34회 세계금연의 날(매년 5. 31.)을 맞이해 비대면 금연행사를 진행했다. 군은 매년 금연의 날을 맞아 홍보관을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이번 금연의 날 행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걷쥬 어플을 통한 금연걷기 9.9 챌린지를 운영하여 성공한 사람에게는 금연홍보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40개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금연의 날 슬로건 「담배는 노답(No 쏍!), 지금 노담(No 담배)! 담배와도 거리두기!」 맞추어 흡연예방(금연교육, 미니골든벨, 미니콘서트) 및 절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부터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해 청소년기 흡연진입을 차단하고, 보다 질 높은 금연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교 안팎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금연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 정

제3차 정책포럼

김정섭 공주시장= 1일 오후 1시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리는 2021년 도시재생 임시총회 및 제3차 정책포럼에 참석한다.

만세보령장학금 기탁식

김동일 보령시장 = 1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만세보령장학금 기탁식에 참석.

월례회의

맹정호 서산시장= 1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월례회의 참석, 오후 2시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서산민항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참석.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문정우금산군수= 1일 오전 9시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리는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에 참석.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2021년 1월 1일 기준 27만 6886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97% 상승한 것으로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2-8번지로 제곱미터당 296만원,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 78번지로 제곱미터당 95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6.58%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함께 세종시와 근접한 동현동(12.7%), 무릉동(10%), 석장리동(9.25%)의 개발기대 심리로 인해 지가상승을 견인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민원토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팩스(041-840-2421)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민원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재철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업무에 임하고,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김동일 시장, '에너지 전환 선도도시 선점' 기획재정부 방문

"인구 감소 · 지역경기 불황 최소화"

김동일 보령시장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 폐쇄로 직면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주요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김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경제예산심의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과 면담을 갖고,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 폐쇄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에너지 전환 선도사업이자 그린뉴딜 사업인 'LNG 냉열 활용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2022년 국비 30억원,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에 국비 50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LNG 냉열 활용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보령시에 위치한 LNG 터미널의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저온 냉열을 활용하여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LNG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상황 이후 증가하는 냉동·냉장 물류수요 충족을 통해 서해안 물류 허브 선점의 첫 단추가 될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은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화를 위해 EV차량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배터리 사용 패턴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자원 활용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추진 중인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사업'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 시의 신성장 동력인 미래자동차 관련 산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 시장은 재정관리국을 방문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기본계획에 국도77호 우회도로 건설과 국도21호 2공구 확포장 사업의 반영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를 건의했다.

2개 사업은 국도77호 해저터널 개통 이후 증가할 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 접근성을 향상하고 교통체증 완화와 물류 운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동일 시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석탄화력 폐쇄라는 위기를 에너지 전환이라는 동력으로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불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김정섭 시장, "시민 건의사항 시정에 적극 반영"

지난 3년간 건의사항 처리결과 시민 만족도 높아

김정섭 공주시장은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중 업무계획보고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행정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지난 3년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왔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매주 열린 시장실과 현장방문, 매월 경제위기 극복시민회의, 동심동덕 읍면동 분담제도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우선,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 및 제안을 의제화한 뒤 추진 상황을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릴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월 읍·면·동 찾아가는 시정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법령 저촉이나 기준 부적합 등으로 사실상 반영하기가 어려운 건의사항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법령 개정 추진과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시장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라며 특혜, 불공정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순위 선정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좋은 제안이 묻히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융·복합하거나 대화, 타협할 필요도 있다며 이를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시민과 무시로 소통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 행복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로 공직자들의 보람"이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시, 무료전화 한 통으로 출입명부 대신한다

내달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콜 체크인 서비스' 운영

보령시는 코로나19 방역 출입명부 작성 편의를 위해 무료전화 '콜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콜 체크인 서비스'는 각종 다중이용업소를 이용 시 이용객이 개인휴대폰으로 업소에 부착된 080번호로 전화를 걸어 출입 여부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로 수신자인 보령시가 발생하는 통신비용 일체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업소가 출입명부를 수기대장이나 QR코드, 개인안심번호 방식 등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왔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덜게 되고,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신속하게 출입 여부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기대장 작성 및 QR코드 작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어린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내달부터(6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080전화 4,000회선을 확보하고 관내 식당, 카페, 제과점, 노래연습장, 이미용실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용신청 접수에 나서고 있다.

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업소의 전화번호가 부여된 홍보전단지(2종)도 함께 배부된다.

시는 프랜차이즈 체인업소는 이미 본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아 이번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장을 우선하여 등록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에게는 코로나19 출입명부 작성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는 본연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서산시, '오렌지 경계석'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높여

동지역 9개교 12Km 경계석 도색 · 보행자 · 운전자 안전 UP

서산시가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동지역 9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경계석에 오렌지색의 도색 공사를 완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오렌지 경계석은 도로와 차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인성 확보가 뛰어나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서산초, 서동초, 부춘초, 서림초, 학돌초, 석림초, 예천초, 동문초, 서남초 등을 대상으로 총 약 12Km 길이의 도색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최신득 서산시 교통과장은 "오렌지 경계석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시민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사업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문정우 군수 전국 최초 금산삼계탕 축제 홍보 지시

문정우 금산군수는 5월 3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는 7월 10일, 11일 이틀간 전국 최초로 삼계탕 축제가 개최된다"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홍보 및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 부서에서 관심을 두고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금산천 데크길 등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야간 조명 및 가로등 등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다"며 "주변 잡초, 거미줄 등을 제거하고 주변환경을 일제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 삼계탕 축제는 온라인 콘텐츠에 현장 행사를 가미해 추진하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콘텐츠의 비중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며 차별화된 금산만의 삼계탕 요리 개발을 위해 오는 6월 30일 요리 경연대회도 열린다.

문 군수는 이외에도 보훈가족 예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여름 재해예방, 공직자 청렴교육 등에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정복 기자

자투리땅에 '녹색쌈지숲' 조성

공주시, 아름다운 도시경관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자투리땅을 '녹색쌈지숲'으로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 축소,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금흥동 일원 약 1,700㎡에 1억 원을 투입해 실시됐다.

시는 이 일대 방음벽과 옹벽사이 공간을 숲으로 조성하고 소나무(장송), 복자기, 산수유 등 교목 49주와 조팝나무, 남천 등 관목 3,330주를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했다.

곽병수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녹색쌈지숲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는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

금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만 76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 이용현황 조사 △지가의 균형 등 산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 열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됐다.

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04%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표준지 가격 상승(7.19%)과 정부의 토지가격 현실화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주소로 우송되는 통지문으로 가능하며 금산군청 홈페이지(www.geumsa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금산군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정복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KT&G 상상마당 부산, 6월 20일까지 전국단위 모집

뷰티 창업지원 '2021 상상마당 코코챌린지' 공모

KT&G상상마당 부산이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2021 상상마당 코코챌린지(Korea Cosmetic Challenge)' 전국단위 공모를 6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상상마당의 문화예술 지원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주제는 친환경 뷰티 브랜드 및 제품이며, 모집 제품군은 스킨 · 클렌징 · 헤어 · 바디 제품 등이다.

접수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https://www.sangsangmadang.com)에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뷰티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2030세대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우선 서류 심사를 거친 후, 워크숍 평가와 멘토링 캠프를 거쳐 7월 14일 최종 선정 2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KT&G 상상마당 부산은 '꽃을 든남자' · '다나한' · '비프루브' 등 브랜드로 알려진 화장품 전문기업 ㈜코스모코스와 협업해 최종 선정 2팀의 제품 제작과정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브랜드 론칭 비용 5천만원과 제품 개발 멘토링 교육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브랜드 론칭 후에는 온 · 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플랫폼을 지원해 브랜드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며, "특히 공모주제가 친환경인만큼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상마당 부산은 KT&G가 홍대 · 논산 · 춘천 · 대치에 이어 전국에 다섯 번째로 설립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지상 13층, 지하 5층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상상마당 중 최대 규모이다. PLAY · CO · WORK · REFRESH 세 가지 콘셉트로 운영되며, 디자인 · 공연 ·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크리에이터 창작센터 및 청년 창업지원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객들이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숙박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김태선기자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 발간 북콘서트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8일 공주만의 이야기를 담은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북콘서트에는 김정섭 시장을 비롯해 윤용혁, 이해준 공주대 명예교수 등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서 기획 배경 ▲공주의 정체성 ▲고대의 공주 ▲백제에 분혀 있던 조선의 공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공주사대부고 학생들도 참여해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에 대한 감상평과 공주의 정체성, 공주의 문화유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는 1권 '역사의 보물창고 백제왕도 공주(웅진백제 발굴이야기)'와 2권 '호서의 중심 충청감영 공주(공주에 새겨진 조선 역사 이야기)' 등 2권으로 구성돼 있다.

1, 2권 모두 국판 255쪽으로 제작됐으며, 가격은 15,000원으로 주요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공주=정상범기자

당진시 '당진 복지네트워크' 협약식 개최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어려운 이웃 적극 지원

당진시가 지난 5월 31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들이 모여 '당진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을 개최했다.

'당진 복지네트워크'는 2019년 보건복지부(사회보장 정보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관협업 사례관리 유관기관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한 복사꽃 네트워크('복지, 사례관리로 꽃 피우다!')가 확대된 것으로, '위기가구 발굴단', '복사꽃 사례관리단', '자원 지원단'으로 구성돼있다.

'위기가구 발굴단'에는 당진우체국, 당진시사회복지협의회, 전국이 · 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당진시지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당진 지구협의회,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당진시재가장기요양기관 연합회, 당진시주택관리협회가 이웃들을 직접 만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견 시 시청이나 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사꽃 사례관리단'은 어려운 이웃에게 상담 및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당진시드림스타트, 당진시 폭력 예방 상담소,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진경찰서, 당진시특수지원센터, 당진시교육복지지원센터, Wee센터, 당진초등학교, 송산 종합사회복지관, 당진 남부사회복지관, 당진 북부사회복지관, 송악 사회복지관,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당진시 노인복지관,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사랑 소망의 집, 마실노인복지센터, 당진시 중증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다.

'자원 지원단'으로는 인적 · 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당진시 복지재단, 지속가능 상생재단, 거남 복지재단, 당진시자원봉사센터로 구성돼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2021년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 추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8일 2021년 주민총회 첫 개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주민자치 컨설팅 이론 강의를 진행했다.

2021년 주민자치 컨설팅은 이론교육 1회와 실습교육 17회로 계획됐다. 이번 이론교육은 주민총회 개념 및 진행방식을 내용으로 Zoom온라인 교육을 통해 진행했으며,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 관련 공무원 약 100여 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론교육에 이어질 읍면동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실습 교육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주민총회 실습 과정 및 주민총회 과정에서의 행정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규모 인원 대면교육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2021년 첫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읍면동에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주민자치 관련 교육 진행 및 참여예산 공모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밭도서관, 6월 북큐레이션 다양하게 선별 운영

6월 북큐레이션 서비스 다채롭게 준비

한밭도서관은 6월 1일부터 시민들이 책을 선택하고, 독서의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6월 북큐레이션을 다양하게 선별하여 운영한다.

일반 책 북큐레이션은 북 카페형으로 새롭게 조성된 제2자료실에 마련되며, 이번 달의 키워드는 '커피(Coffee)'로, 커피에 대한 설명과 맑고 향기로운 커피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도서를 소개한다.

또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 책 – 여행'이라는 테마로 대출 인기 도서를 추천하고, 아쉽게도 독자를 찾지 못하고 서가 속에 잠들어 있는 미대출도서 '아무도 모르는 책'을 소개한다.

또한, 어린이 책 선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자료실 사서가 선정한 6월 어린이 책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IBDP 국제교사자격증과정 모집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수강생 모집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 국제대학원은 오는 7월 5일부터 30일까지 IBDP 국제교사자격증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내 최초로 'IBDP* 국제교사양성과정' 인증기관이 된 남서울대 국제대학원은 능력과 경험이 있는 IBEN**의 초빙과 행정적 절차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에 문을 열게 되었다.

국내 · 외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본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전 세계 5000여개 IB School과 국제학교 교사 및 IB 본사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내에는 제주 브랭섬홀아시아국제학교 외 11개 교가 IB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교육하고 있다. 본 자격증 과정은 15주에 2과목 총 30주간 4과목의 이론 수업과 국내 · 외 IB School에서 4주 동안의 실습을 거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IBDP 국제교사자격증과정은 1968년에 창설되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의 IB 커리큘럼 중 고등학교과정인 DP(Diploma Programme)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는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IBDP 국제교사자격증과정의 모집대상은 국내 · 외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지원자들은 서류 및 영어구술면접을 거친 후 자격증과정에 등록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홈페이지(www.igs.nsu.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41-580-3573~4)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정복기자

대전동 · 서부교육지원청, 전국 소년체전 양궁 중등부 3관왕

대전광역시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열린 '화랑기 제42회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중등)'에 출전한 대전내동중, 대전체육중, 대전대청중 학생선수들이 도합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중부 개인전은 전국 172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40m에서는 내동중 염원준, 대청중 박은성 선수가 동점으로 1위를 기록하여 대전지역에서 2명이 공동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진풍경을 자아냈으며, 50m에서는 내동중 최우석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였다.

또한, 내동중 최우석 선수는 1:1 토너먼트로 치러진 남중부 개인전 올림픽라운드(60m) 64강에서 전국 유수의 선수들을 꺾고 긴장감 넘치는 명승부 끝에 금메달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단체전에서도 은메달 2개를 차지하는 맹활약을 보였는데 '염원준, 최우석, 이건희(이상 내동중), 박은성(대청중)'으로 구성된 남중팀과 '내동중 염원준(男), 체육중 신서빈(女)'으로 구성된 혼성팀이 영광의 주인공이다.

김정환기자

배재대 AI · SW중심대학사업단 안항교육 시상식 개최 배재대학교(총장김선재) AI · SW중심대학사업단은 최근 인턴십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2021년 1학기 AI · SW중심대학 안항교육 프로그램 시상식'을 개최했다.

미래산업유통 · 베이킹시티, 취약계층 지원 식료품 후원 굿네이버스 충청본부(본부장 채종병)가 천안식자재 미래산업유통(대표 안준수), 천안제과재료 베이킹시티(대표 김다정)와 함께 지난 24일, 아산시(시장 오세현)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청양군보건의료원 '피 한 방울로 암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상경)이 지난 4월부터 한 방울의 피로 60여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무료 혈액검진을 실시해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원은 지난달 항목 중 암 표지자 검사결과 간암 질환이 의심되는 주민을 확인하고 조기 치료에 들어가도록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에 나섰다. 보건의료원은 이 주민에 대해 검사결과지 발송 전 유선으로 먼저 통보하고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조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왔다. 인체 장기 중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리며 암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어 초기 발견과 치료가 어렵다.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가 시행하는 혈액 종합검진은 기본적으로 간 · 신장 기능검사 등 혈액학적 검사와 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암 표지자 검사를 병행함으로써 암 발생 사실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별도 방문 없이 건강검진 접수처에서 한 번의 신청과 채혈로 두 가지 검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재방문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한화그룹, 대전MBC와 '2021 한빛대상' 업무협약식 진행

2005년 도입 이후 17회째로, 대전MBC와 한화 공동 주최

한화그룹과 대전MBC는 31일 대전MBC 회의실에서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김신연 사장과 대전MBC 김환균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 한빛대상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한빛대상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하는 인재들을 발굴, 포상해 아름다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대전MBC가 2005년 제정하고, 한화그룹은 2006년부터 공동 주최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빛대상은, ▲사회봉사 ▲과학기술 ▲효행 ▲지역경제 ▲문화예술체육 등 6개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수상자를 선정하고, 부문별로 트로피와 함께 1000만원씩 시상할 예정이다. 후보 접수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시상식은 10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김신연 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이 시기에 지역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을 위해 땀 흘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화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의 정신으로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조폐공사, 우리카드와 '지역상품권' 서비스 업무협약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왼쪽)이 31일 우리카드 본사에서 우리카드 김정기 사장(오른쪽)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aejeontoday.com

MSL 레저용품 전문점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자이글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보트보드 전문점 · 골프용품
專務理事 최재종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478-6 TEL : 042)489-3030 · 486-7876
FAX : 042)472-3885 H · P : 011-408-6600 Website : www.msleports.co.kr

농협 금산군지부 '우리 농산물 꾸러미' 기탁 농협 금산군지부(지부장 양환성)는 지난 5월 28일 금산군 취약가정을 위해 400만 원 상당 우리 농산물 꾸러미(40박스)를 전달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홍보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천주교 대전교구는 지난 5월 29일 당진 솔뫼성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성공개최를 위해 세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홍보 동아리, 호서고등학교 영화 동아리로 구성된 홍보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미케팅공사-대전사랑메세나, 미얀마 평화기원 성금 전달 대전미케팅공사와 대전사랑메세나는 5월 30일 임직원과 회원이 모금한 미얀마 평화기원 성금을 대전역 서광장에서 개최된 미얀마 평화시위 현장에서 '대전 미얀마민주주의 평화연대' 대표인 '한니' 씨에게 전달했다.

세종충남대병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관리 협약 체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나용길)은 5월 31일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뇌사관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주시 의당면, 다문화가족 행복모임 프로그램 공주시 의당면(면장 한기두)은 지난 30일 농촌체험시설인 약손산방에서 다문화가족 행복모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관내 다문화가족 1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전통음식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문화가족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양무리교회, 이동 도서 지원 후원금 전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양무리교회(목사 계희원)가 지난 28일,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공동단장 오세규, 손정열)에 가정의 달 맞이 저소득가정 아동 도서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美 캘리포니아에서 유학한 강다은씨, VR미디어콘텐츠과에 입학

13년 유학 후 대전 폴리텍대학 입학 '화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에서 13년 유학 후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학장 박봉순) VR미디어콘텐츠과에 입학한 학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만 33세인 강다은 학생으로, 2006년 부산중앙여고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떠나 Pasadena City College에서 기초전공을 수학한 후 Hunter College에서 스튜디오 아트를 전공한 아티스트이다.

강다은 학생은 유학생활 동안 다양한 인턴경험도 쌓았다. Bianchi & Bianchi Photograph, Salomon Arts Gallery, Terry Emmons Interior Design 등 유명 아트관련 회사에서 순수예술 공부와 현장실무를 병행하였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실감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갖던 중 한국폴리텍대학의 VR미디어콘텐츠과가 유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강다은 학생은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해보니 VR음향제작실, 영상합성실 등 최신 장비를 갖춘 실습실부터 쾌적한 교육 환경, 실감영상 콘텐츠 기업 현장전문가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수업까지 너무 만족한다. 특히,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이 큰 도움이 된다"며, "하이테크과정을 마치고나면 전문분야인 Art전공과 연계하여 언택트 시대 VR갤러리를 제작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가상공간에 전시하는 개인 창업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최태준 VR미디어콘텐츠과 학과장은 "강다은 학생은 예술적 감각과 그동안 미국에서 쌓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세히 설계하고있다. 학과에서도 VR 제작 기술 교육은 물론 학생이 꿈꾸는 창업 관련 컨설팅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 VR미디어콘텐츠과는 2019년 신설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학과로 최첨단 VR장비 및 교육환경을 갖추었다. VR미디어콘텐츠과는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하이테크과정을 운영 중이며 교육비, 재료비, 중식비 모두 국비 지원되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대전VR/AR제작거점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기타 유관업체와의 활발한 MOU 체결로 VR 콘텐츠 개발 협력, 취업처 제공 등 다양한 인적교류 또한 진행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내 10여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복지시설장과 '랜선소통의 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31일 관내 10여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들과 '랜선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홍 청장은 얼마 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살뜰히 돌봐드려 언론에 보도된 미담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시설장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 '청년나들목&청춘인포'와 함께 추진하는「사회복무요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무기관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예산읍 예산리 가정교회, 목사 및 신도 등

깨끗한 환경 만들기 솔선 '앞장'

매주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신도 등 UPF(남북연합통일주체) 회원 일부가 당연히 내가 하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산읍 일부 지역에서 스스로 자연보호 활동 겸 내집앞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솔선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예산읍 예산리 가정교회(목사 채윤례) 신도 등 30여명이 5월 30일 오전 본 교회 주변과 예산군청사 주변등을 깨끗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매년 연례행사로 환경운동 등 각종 쓰레기와 오물들을 모두 수거해 자신들의 일처럼 몸소 실천하여 주변일대를 깨끗한 환경으로 만드는데 신도들이 모두 팔걷고 나섰다.

따라서 채 목사는 각 골목안길 소도로 인근 도랑 등 구석구석을 내집처럼 대청소, 이로 인하여 예산군을 찾는 각종 민원인들에게 깨끗하고 아주 산듯한 군 신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단단한 각오다. 특히 이교회는 신도중 일본 · 필리핀 · 베트남 등 다양한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있어 채목사가 일일이 자신의 자매들처럼 아끼고 보살피고 있어 주위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채윤례 목사는 "조그만 정성을 쏟아서 우리군을 지키고 아름다운 군의 주인이 돼야겠다는 취지에서 이운동을 시작했고 군을 찾는 민원인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드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서구, 빅데이터 기반, 3공(공감, 공간, 공유) 주차 지도 구축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참가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31일 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원 · 대전 · 충남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가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 MBC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후원한 이번 정책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정책 발표에 나선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KAIST 지식혁신연구센터와 협약을 통해 ▲ 빅데이터 기반, 3공(공감, 공간, 공유) 주차 지도를 구축하였으며, 그 성과로 ▲ 서구 종합 주차정보 대시보드 시스템 마련 ▲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공영주차장 및 공유주차 후보지 선정 ▲ 혼잡 시간 전 주 · 정차 단속을 위한 선제적 단속 스케쥴링으로 지역현안인 주차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장종태 청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해 더 많은 정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김태선기자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는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인증기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대표 홈페이지(https://www.cndc.kr)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은 장애인 및 고령자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 후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켜 웹 접근성 국가 표준인 KWCA 2.1을 기준으로 진행된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에서 100% 준수율로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정석완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마크 획득으로 공사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도민들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웹 접근성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임과 정보 제공의 균등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당진중학교 씨름부, 충남 소년체육대회 금메달 2개 획득 당진중학교 씨름부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태안군 전용 씨름장에서 열린 충남 소년체육대회 씨름경기에서 4체급에 출전해 경장급 · 용장급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서산시 해미면, 더 드림 보따리 사업 개시

서산시 해미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호용)가 5월 생신상 차려드리기에 이어 시작한 기쁨 더 드림 보따리 사업이 면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있다.

더 드림 보따리 사업은 첫째 기쁨 더 드림. 두째 찾아 더 드림. 셋째 애정 더 드림. 등 기존의 복지사업들이 제공하고있는 서비스가 어루만지지 못하는 틈새에 대한 서비스 아이템을 발굴 제공해, 수혜자들에게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해미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수혜대상에 따라 사업명칭을 애정 더 드림(아동 · 청소년), 기쁨 더 드림(노인), 찾아 더 드림(한계근로빈곤층)으로 나눴으며, 보따리 구성품목 사업별로 준비했다.

수혜대상자에게 지급예정으로 대상자 맞춤형 더드림 보따리사업을 자치위원회 자체 복지시책으로 정착시켜 해미면 촘촘복지 그물망 구축 시책 완성에 기여 한다는 방침이다.

서산=김정한기자

우송정보대, 글로벌실용예술학부 실용댄스전공 댄스 경연대회 수상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예술학부는 지난 5월 28일과 29일에 온라인으로 치러진 'Dance of Mask', '캠퍼스를 누려라', '해방'의 3개 댄스경연대회 행사에서 글로벌실용예술학부 실용댄스전공 재학생의 수상 소식을 밝혀왔다.

서울 케이팝 댄스 페스티벌에서 주최한 'Dance of Mask', '캠퍼스를 누려라'는 전국 단위의 행사이며 비대면 온라인 예선 방식을 도입해 진행된 댄스경연 대회였다.

이정복기자

둔포 라이온스클럽, 사랑의 물품 나눔 행사 가져 둔포라이온스클럽(대표 임철민)은 지난 28일,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반찬 및 물품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인 사

■ 대전시

◇과장급(4급)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시민봉사과장 최교신

◇팀장급(5급)

▲홍보담당관 이연길 ▲시민공동체국이관희 ▲보건복지국 김연주

기 고

숲으로 달성하는 탄소중립… P4G 산림특별세션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주변을 둘러보면 숲과 나무가 언제나 우리 주변에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림은 다양한 생명체를 품으며 우리에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대기정화, 수원 함양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기후변화시대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산림의 역할은 바로 '탄소흡수원'이다. 기후변화 유발 요인 중 하나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이다. 전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2016년 11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세계 여러나라가 앞다투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상당수가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서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최적의 자연기반 해법으로 그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산림청도 이러한 산림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산림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국은 산림녹화에 있어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등 여러가지 성공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하여 지난 1월 '산림부문 추진전략(안)'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순환경영 정책을 발표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은 최근 전세계가 주목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핵심의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기후변화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P4G의 회원국으로서 그린뉴딜에서의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역시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큰 틀 하에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업을 구상하고 자금지원·지식과 경험 공유·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향한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다. P4G의 12개 회원국(남아공·네덜란드·대한민국·덴마크·멕시코·방글라데시·베트남·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케냐·칠레·콜롬비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정상급 국제회의 중 참석자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 정상회의이다.

이번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경우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Inclusive Green Recovery towards Carbon Neutrality)'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다. 전세계적 코로나19 상황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녹색회복 방식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장이 될 것이다. 특히, 단순히 선진국간의 논의가 아닌, 개도국 및 국제기구 수장,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는 5개의 기본세션과 10개의 특별세션이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녹색미래 주간중 5월 28일 밤 10시에 '글로벌 탄소중립과 평화를 위한 산림'이라는 주제로 산림특별세션을 개최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이 어떤 역할을 하며, 평화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다채로운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산림특별세션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 미국 상원의원,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차장, 주한 노르웨이 대사,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자원부 차관, 세계자원연구소(WRI)·녹색기후기금(GCF) 관계자, SK임업·트리플래닛 등 민간기업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

기후변화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탄소중립 등은 본래 국제사회에서 먼저 제기된 정책 이슈이다. 그렇기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이 어떤 역할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산림특별세션은 선진국과 개도국, 공공과 민간의 시각과 비전들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미래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산림특별세션이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 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자!

방 준 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위

최근 들어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다양한 지식을 함유하고 있다.

중요한 국가권력으로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 다가왔다.

이렇듯이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외근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신고들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경찰이 하는 업무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명령, 통제, 규제, 단속 업무인 만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경찰관이 국민들을 향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와 방법 등을 문제 삼으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인권침해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외근경찰관들에게 요구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사례를 전국 모든 경찰관들이 공유하여 재발방지와 더 나은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해 전 언론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사건의 범인검거 후 보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되거나 과격한 집회시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수차와 물대포 사용이 집회 시위자의 사망으로 이어졌고,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과정에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아직도 국민들의 완벽한 신뢰를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에 좀 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우려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찰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국민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법언을 반드시 명심하여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필자는 간곡히 기대한다.

대전 엑스포재창조 마무리로 과학수도 도약

대전시가 2021년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으로 재도약한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은 59만 2,494m2 규모의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 및 과학테마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약 1조 2500억원을 투입해 엑스포기념구역, 첨단영상산업구역, 국제전시컨벤션구역, 기초과학연구원(과학문화센터), 사이언스콤플렉스구역 등 총 5개 주제를 구역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스튜디오큐브('17.7) ▲기초과학연구원 1단계('17.12.) 및 과학문화센터('19.12.) ▲엑스포기념존 1단계('20.6.) ▲기반시설 공사('20.12.) 등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8월과 내년 4월 각각 준공 예정인 ▲사이언스콤플렉스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엑스포재창조 사업이 완료되면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EXPO) 이후 30년 만에 엑스포과학공원이 과학과 비즈니스, 관광과 휴식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부활한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과학수도 역할과 더불어, 5만여 개의 일자리 및 5조 3600억원의 생산유발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자인 ㈜신세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열어 지역 인재 채용에 나선다.

김태선 기자

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 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배 기자

사 설

P4G 정상회의, 기후대응 선도 계기 되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60여 명의 해외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30~31일 이틀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P4G 정상회의는 지난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차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무엇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후대응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유례없는 글로벌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강화된 기후대응 공약을 발표하며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P4G에 대한 신규 공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구촌의 현안인 기후·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선진국들에 국한하지 않고 개도국들의 사정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강화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참토록 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지구촌의 당면과제이자 우리 현안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에서 10위권이다.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국가'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심각하고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전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도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31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필요성 등을 담은 '서울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확고한 대응 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할 진일보한 내용들이 선언문에 담기길 기대한다.

국민 정서 거스르는 국적법 개정 밀어붙일 일 아니다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부의 국적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이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 글이 올랐고 동의 건수가 30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있었던 국민 청원 가운데 단연 가장 뜨거운 반응 중 하나다.

법무부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의 미성년 자녀에게 신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법무부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혜택을 받는 국가 국민 가운데 무려 95%가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특정 국가 국민에게 압도적으로 수혜가 쏠리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법무부 국적법 개정에 대한 여론 반발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데에는 반중(反中) 정서가 한몫을 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야욕과 주변국에 대한 안하무인식 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엄존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키 어렵다.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서 국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600~70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닭 잡는 데 소 칼 쓰는 격이다.

법무부는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특정국(중국)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 비중이 크지만 추후 이런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안일한 생각이고 낭만적인 기대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효과가 크지도 않은 데다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데 굳이 국적법을 손댈 이유는 없다. 국적법은 국민적 합의 없이 마구 칼질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여론 반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밀어붙인다면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재)예산사랑장학회, 대학생 장학생에 장학증서 수여

52명에 각 200만 원의 장학금 지급

(재)예산 사랑 장학회(이사장 황선봉 군수)는 지난 5월 29일 군청 추사홀에서 '2021 (재) 예산사랑장학회 장학생(대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예산 사랑 장학회는 지난 2월 말 정기이사회 의결로 중학생 72명,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52명 등 총224명에게 2억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이날 수여식에서는 우선 선발한 대학생 52명에게 각 2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코로나19로 학업과 취업준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돼 힘이 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업에 정진하면서 예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장학회에 대한 고마움도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오늘 대학생 여러분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군민들의 뜻을 모아 전달되는 것인 만큼 어떤 장학금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예산군을 빛낼 훌륭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예산사랑장학회는 군의 출연금과 장학에 뜻이 있는 군민들의 기탁으로 매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우수인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학생 1330명에게 7억7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예산= 이영렬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바른신문

발행·편집인 김현정 | 회장 김성구 |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산청안내 042)538-1603 | 구 독 료 월1만 50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E Eng
(주) 에스이 이엔지

8Kw
4M
중부권 최고사양
레이저 · 절곡기 도입

모든 소재 절단 가능 (구리·황동·알루미늄)
스텐 40T, AL 25T, 구리·황동 10T, 연강 25T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2-4
대표전화 : 042. 934. 0027